

Mon 11	Tue 12	Wed 13	Thu 14	Fri 15
-----------	-----------	-----------	-----------	-----------

학문관 전시!
(학문관 1층)

게스트와 함께하는
* 토크쇼 *
성소수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미래
저녁 7시 포스코관 B153

패널
박혜민님 (한양 LG&T 인권위) | 조미 (백남)
김모님 (서울여자대학교) | 오가 (백남)
정하은 O

사회
대우 (백남)

★영화제 기간★ 저녁 7시

- ① 포스코 B153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2012, 김초광수) / 106 min
- ② ECC B142 김빈슨 주교의 두 가지 사랑 (2013, 맥키 알스틀) / 83 min
- ③ ECC B142 The Wall 2 (2000, 제인 멘더슨 외) / 96 min

★PARTY★
저녁 7시 반
신촌 나비어
feat 하제&우아
인민보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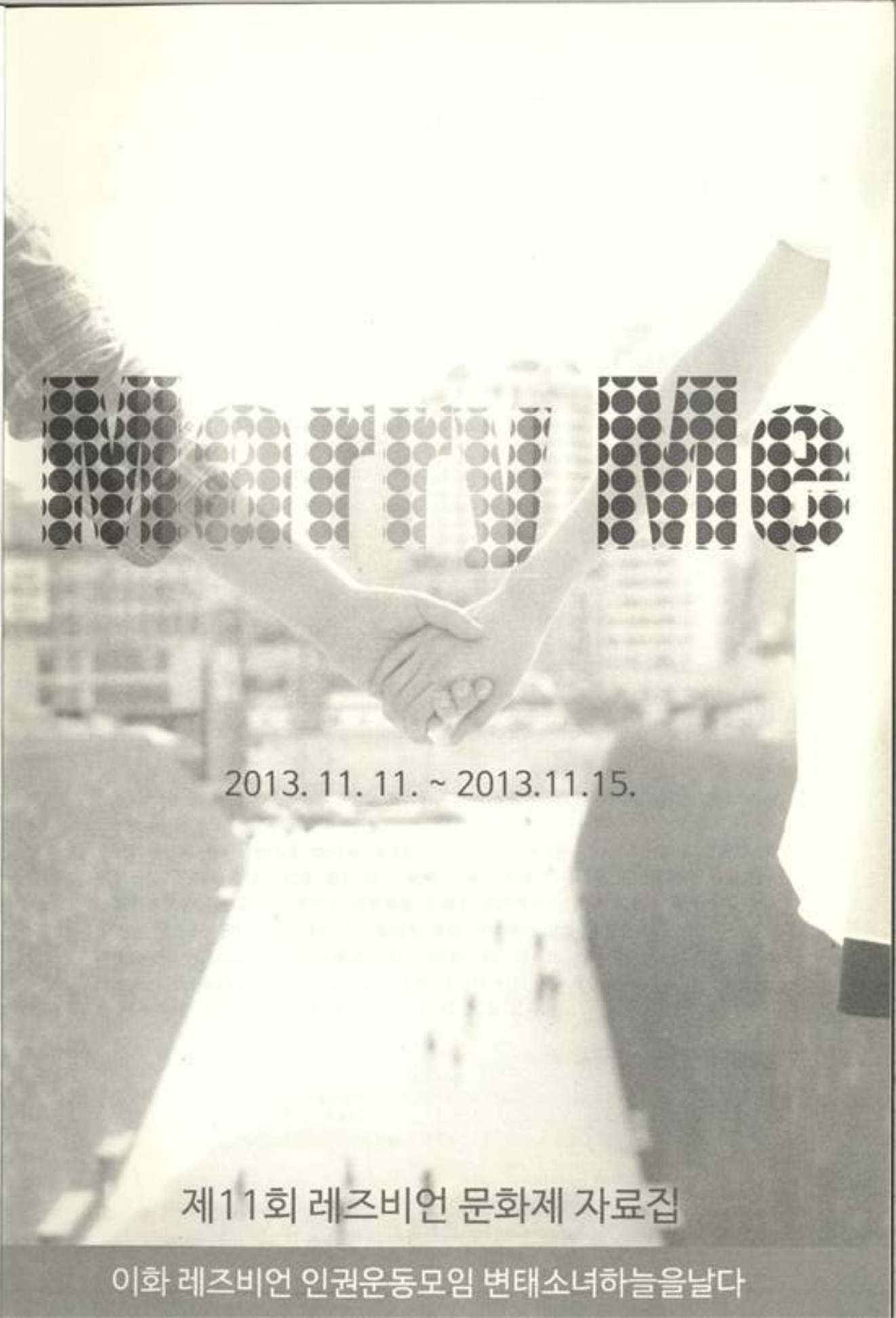
변태소녀하늘을날다
blog.naver.com/ewhabyunnal
@ewhabyunnal
ewhabyunnal@naver.com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문화관 219호
02) 3277-7696
후원 신한 110-372-103125 노정은



2013. 11. 11. ~ 2013.11.15.

제11회 레즈비언 문화제 자료집

이화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equality

2013. 11. 11. ~ 2013.11.15.

제11회 레즈비언 문화제 자료집

이화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표지 설명

올해도 돌아온 가을 데이트 시즌,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패션 코디와 데이트 명소 추천

트렌디셔널과 콰니언트를 동시에 잡으려는 당신, 오늘의 패션은 루즈하고도 심플한 핏 이면서도 F/W시즌의 느낌을 잃지 않은 팬시한 체크 패턴의 셔츠를 입어보는게 어떨까? 아방가르드한 취향을 즐기면서도 심플함을 원하는 당신에게는 올해 트렌드 중에서도 가장 핫했던 시스루 블라우스에 대비되는 컬러의 솔리드한 레더 진을 추천한다. ECC(Ewha Campus Couple)에게 가장 어울리는 데이트 명소는 역시 ECC(Ewha Complex Center)가 아닐까? 그리고 그녀와 당신의 이니셜을 새긴 볼드하고도 시크한 링과 함께라면, 오늘은 그녀에게 대답을 들어도 좋을 것 같다.

표지 모델 케이 아연

에디터 보리

장소 18

1994년 10월 10일 10월 10일

1994년 10월 10일 10월 10일

1994년 10월 10일 10월 10일
1994년 10월 10일 10월 10일
1994년 10월 10일 10월 10일
1994년 10월 10일 10월 10일
1994년 10월 10일 10월 10일
1994년 10월 10일 10월 10일
1994년 10월 10일 10월 10일



여는 글

여름부터 시작된 문화제 기획 회의에서, 올해는 무슨 이야기를 할지 얘기하던 중 무겁다면 무겁고 가볍다면 가벼운 이 '결혼'이라는 주제는 너무도 쉽게 저희에게 와주었습니다. 마침 올해는 여러 나라들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으니, 시의성도 있고 충분히 해볼 만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한 시점에 두-둥! 김조광수 감독의 결혼식 기획단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지요. 로맨틱한 기운을 잔뜩 받아 우리도 한 번쯤 'Marry me'를 외쳐보고 싶었습니다.

문화제 기간 동안 내내 서로의 미래에 대한 희망찬 이야기를 잔뜩 했습니다. 청사진을 가지고 있던 활동가는 미래상에 두둑하게 살을 붙였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던 활동가는 다른 사람들의 청사진을 구경하고 본인의 그림을 스케치할 기회가 있었지요. 현실적으로 상황을 찾아볼 때는 벽에 쿵쿵 부딪쳤지만, 마음까지 쿵쿵 내려앉지는 않은 것은 그래도, 아직은 오지 않았더라도, 꿈이잖아요? 아직은 오지 않은 미래未來지만 아름다운 미래'美'來이길 바라면서.

십년 전 우리는 어린 소녀들이었고,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십년 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아직 학부 재학생들이기에, 결혼에 대한 집안의 압박이나, 선을 보라는 친척들의 잔소리, 또는 미혼(또는 비혼) 여성에 대한 사회의 시각 때문에 구체적인 상처를 받아본 일이 아직 없기에 마지막 유쾌함만은 지니면서 시골벽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유쾌함을 잃지 않기 위해, 오히려 우리는 여전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각자가 꿈꾸는 가족이 있기를,
우리의 경제성이 상처가 되지 않는 미래이기를,
그 가족과 행복하게 살 권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여럿이 아닌 혼자서 멋지게 살 권리도 역시 있기를,
꿈꾸면서, 변날의 열한 번째 문화제, Marry me, 시작합니다.

2013년 11월
보리

목차

1부

1. 변날 소개 - 11
2. 변날 연혁 - 12
3. 역질문 & 퀴어피디아(Queerpedia-용어설명) - 15
4. 변날의 일년살이 - 18

2부

1. 가상커플 에피소드 - 21
2. 각자 꿈꾸는 미래상 : 보리, 유니, 케일, 케이 - 24
3. 교환학생 인터뷰 - 29
4. 김조광수 & 김승환 커플 결혼식 후기 - 34
5. 신입 글 : 레이런, 모카, 유니, 케이, 케일, 흥연 - 36

3부

1. 올해의 Hot 이슈들 - 49
2. 세계 결혼 합법화 동향 - 60
3. 퀴어 커플 / 유명인 - 62
4. 대담 "우리가 원하는 법/가족/미래"- 65

4부

1. 아직 다 하지 못한 이야기 - 79
2. 관련 단체 소개 - 81
3. 보너스! 단체들의 트위터 계정 - 85
4. 모두의 후기 -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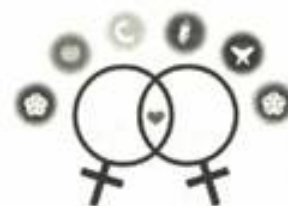
변태소녀하늘을날다

변태소녀하늘을날다(이하 변날)은 동성애자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담은 단어 중 하나인 '변태'를 자칭합니다. 이로서 우리는 편견을 내포한 언어의 폭력에 정면으로 맞서는 동시에, 어떠한 차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가진 당당하고 긍정적인 확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변태소녀하늘을날다는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학내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입니다. 변날은 2001년부터 결성되어 2002년 자치단위로 인준 받았습니다. 변날은 학생회비와 공간을 배정받는 학내 공식 단체 중 하나이며, 현재 한국에서 레즈비언 인권운동을 표방하는 유일한 대학 단체입니다. 변날은 매년 개최하는 레즈비언 문화제를 비롯해 강연회, 영화제, 캠페인, 모니터링, 언론기고 등 다양한 레즈비언 권익 활동을 하며,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학외 연대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Byunnal includes a Korean word Byeontae, which means 'freak', for this word has been used to stereotype LGBT community. By doing so, we stand against the implied meaning of the word: social discrimination against homosexuality. The name makes us full of positivity and confidence about ourselves in spite of all the discrimination from our society.

Byunnal is one of the most active college community working for the LGBT rights movement. Created and managed by the students Ewha Womans University since 2001, Byunnal has been the host and the participant of various LGBT rights events. Also, we hold a "Lesbian Festival" on campus every fall semester, which started from 2003. Byunnal also hosts queer movie festivals, off-campus campaigns and student counseling programs. In addition, we also have cooperated with other human rights groups and NGOs such as LGBTACT(Rainbow Movement Group Opposing Discrimination against Queers) and ADOACT(Establishing Anti-Discrimination Law Movement Group).



변날 연혁

2001년

- 2001.05 대동제 참여
(무지개 자보, 플랜카드 학내 게시, 장기자랑 참여, 폐막제 줄다리기 참여)
- 2001.07 '여성이반 인권캠프' 주최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공동주최)

2002년

- 2002.03 학내 정식 자치단위 인준
- 2002.03 3.8여성의 날 기념 무지개 사위 주최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waw, 끼리끼리 공동주최)
- 2002.04 이화 레즈비언 엠티 기획
- 2002.05 이화 대동제 일일 주점 개최
- 2002.07 한국 동성애자 연합 결성
- 2002.08 제5회 청소년 인권학교 주최
(한국남성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 친구사이, 연세대 캄루게더 공동 개최)
- 2002.09 대학 동성애자 모임 연합 엠티 기획 (서울대 동성애자 모임 바음 005 공동기획)
- 2002.12 '밝히는 영화제' 개최 (끼리끼리 공동개최)

2003년

- 2003.03 반성폭력 네트워크 캠페인- 자료집, 배지 배포
- 2003.03 '퀴어문화축제 2003 조직위원회' 결함
- 2003.05 1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년 어찌다 이성애자가 되었니?> 개최
- 2003.05 문화제 기간 중 자료집 도난 테러발생
- 2003.08 제 6회 청소년 인권학교주최 (공동주최)
- 2003.09 이화여자대학교가 변날의 공개세미나(여성성적소수자 자긍심 갖기 프로그램)를 위한 강의실 사용신청을 거부
- 2003.09 이화여자대학교를 '성적지향에 의한 교육기관의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 진정
- 2003.12 변날 해소 위기

2004년

- 2004.02 변날 해소 자료집 준비
- 2004.04 변날 재결성
- 2004.04 총학생회에 변날 자치 공간 사용권 확보를 위한 질의
- 2004.05 반성폭력 네트워크 재정비
- 2004.08 토론회 <레즈비언, 그녀들의 다름과 같음의 목소리들> 주최
(레즈비언인권연구소 공동주최)

2004.08 레즈비언 인권운동가 MT

2004.10 2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하지만 난 레즈비언인 걸> 개최

2005년

- 2005.05 10대 청소년 이반을 대상으로 한 '지금 만나러 갑니다' 행사 개최
- 2005.09 3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편견클리닉, 이반과 일반> 개최
- 2005.09 문화제 기간 중 자보가 찢기고 레인보우 천이 도난당하는 등의 테러 발생

2006년

- 2006.09 2006 레즈비언 문화제 '위험한 레즈비언의 화려한 꿈' 개최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레즈비언권리연구소 공동 주최)
- 2006.09 4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하늘을 봐, 변태소녀가 날고 있어> 개최

2007년

- 2007.02 이화자치단위연합회 결성
- 2007.03 이화자치단위연합회 제1회 문화제 '지금 일하러갑니다' 개최
- 2007.09 5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변하다> 개최
- 2007.11 '차별금지법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차별 저지를 위한 긴급공동행동' 참여
- 2007.11 '차별금지법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차별 저지를 위한 긴급공동행동 대학모임' 구성

2008년

- 2008.03 이화자치단위연합회 제2회 문화제 '지금은 연애 중' 개최
- 2008.04 최초의 커밍아웃 레즈비언 국회의원 후보 최현숙 알려내기 사업
- 플랜카드와 자보 게시
- 2008.04 최현숙과의 간담회, 후원파티 자원봉사
- 2008.05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결성
- 2008.05 갑소사프로덕션의 대학 내 여성주의 다큐멘터리 촬영
(성공회대 여성주의저널 n, 서울대 여성주의자 문화집단 난리부르스 공동참여)
- 2008.09 6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변태> 개최
- 2008.09 문화제 기간 중 무지개결개 도난 테러 발생
- 2008.10 테러 주동자들이 교내 모 동아리 대표·임원이었음을 파악하고 동아리연합회에 비상동아리대표자회의 소집요청 - 동아리 대표자들 투표로 중앙동아리 제적
- 2008.12 '변태소녀에게날개를달아주고싶은사람들'과 함께
2008 변날 문화제 테러 자료집 발간

2009년

- 2009.02 새내기OT에서 '새내기를 위한 성소수자 바로알기 팝플렛' 배부
- 2009.06 '자치권을 되찾을 이화인들' 결성, 총학의 예산 지급 거부에 항의하는 활동 (자치단위연합회 공동대응)
- 2009.09 7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소통> 개최
- 2009.11 제2회 LGBT인권포럼 개최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2010년

- 2010.01 변태소녀하늘을날다 공식 블로그 오픈 (<http://blog.naver.com/ewhabyunnal>)
- 2010.03 새내기 OT에서 '새내기를 위한 성소수자 바로알기 팝플렛' 배부
- 2010.03 이화자치단위연합회 소식지 발간
- 2010.05 섹슈얼리티 문화제 <뽕뽕~ 성교육버스> 전시 및 강연회
- 2010.08 8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변태소녀 시간을 살다> 개최
- 2010.11 제3회 LGBT인권포럼 개최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2011년

- 2011.03 <다양성 하이 High : 모두가 존중받는 강의실 만들기> 강의실 모니터링 프로젝트
- 2011.05 'the LGBTQ word' 반차별 토크쇼 강연회 개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
- 2011.10 9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커밍아웃 : The LGBTQ Words> 개최
- 2011.11 'Queer story in Campus' 공동참여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대학모임 주최)
- 2011.12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위한 서울시의회 점거 농성 참여

2012년

- 2012.02 LGBT 인권 포럼 기획, 진행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 2012.05 퀴어 토론탐담 활동 진행 시작
- 2012.05 이화자치단위연합회 제3회 문화제 '깨닫다.' 개최
- 2012.06 퀴어문화축제 부스 운영
- 2012.11 10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십년感수> 개최

2013년

- 2013.02 LGBT 인권 포럼 기획, 진행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 2013.05 이화자치단위연합회 제4회 문화제 '그건 너무 폭력적이야' 개최
- 2013.06 퀴어문화축제 부스 운영
- 2013.09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의 '어느 멋진 날, 당연한 결혼식' 대학생 지지단 활동
- 2013.10 LGBT 상담 컨퍼런스 주최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공동주최)
- 2013.10 'You Can't 콘드롤(CCondrol) Me' 간담회 주최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공동주최)
- 2013.11 11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Marry Me> 개최

역질문 : 이성애자들에게 궁금한 것

당신들은 왜 이성애자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터 이성애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까?

이성애라는 것은 누구나 성장 과정에서 한번쯤 거치는 단계가 아닙니까?
당신의 이성애는 동성애에 대한 신경증적인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동성애 경험 없이 어떻게 이성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성애자들은 동성애자를 유혹해서 이성애자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성애자를 동성애자로 바꿀 수 있는 치료법이 나왔는데,
치료를 받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성애를 인정하지만,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청소년을 '음란의 바다'로 내모는 꼴이 아닙니까?

요즘 이성애가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애자들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이성을 보면 다 끌리나요?

당신은 이성과의 우정을 사랑과 혼동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성애자들은 데이트를 하면 무엇을 하나요?

이 질문들이 황당하신가요?
네, 황당합니다.

이 질문들은 동성애자들에게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을 '이성애자'로 바꾼 것뿐입니다. 혹시 당신도 위의 질문들을 동성애자들에게 던져본/던지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요?

참고 : 최 안드레아 저음 <터부에서 삼식으로의 전환>
변남 첫 번째 문화제 <넌 어쩌다 이성애자가 되었니?> 자료집 휘런님 글

퀴어피디아 Queerpedia

1. 성 정체성(sexual identity)

: 사회, 신체적 성별/성적 지향(성적)관계의 양상 등과 같은, 스스로가 부여하는 성과 관련한 정체성을 포괄해 총칭하는 말

1.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 감정적이거나, 성적이거나, 로맨틱함을 느끼는 대상이 되는 젠더(gender)의 방향

(1) 모노섹슈얼(mono sexuality) : 일정한 하나의 젠더에만 이끌리는 것

① 동성애(homosexual)

② 이성애(heterosexual)

(2) 논 모노섹슈얼(non-mono sexuality) : 둘 이상의 젠더에 이끌리는 것

① 양성애(bisexual) : 자신과 같거나 다른 성에게 이끌림

② 범성애(pansexual) : 모든 젠더와 생물학적 성별에 이끌림

③ 다성애(polysexual) : 동성애나 이성애를 구분하기 어려운 둘 이상의 젠더에 이끌림

(3) 무성애자(Asexuality) : 타인에게 성적인 이끌림을 경험하지 않는 것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4) 퀘스처너리 또는 퀘스처닝(Questionary or Questioning)

: 아직 성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았거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탐구하는 것

(5) 바이큐리어스(bi-curious)

: 자신이 논 모노섹슈얼(바이섹슈얼)일 가능성을 열어두거나 탐구하려는 것

2.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

: 스스로가 인식하고 부여하는, 성별에 대한 근본적인 감정

(1) 남자(man) / 여자(woman)

(2) 젠더 퀴어(gender queer)

: 완전히 남/녀로만 구분되지 않는 성별을 소유했거나,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에 반대

① 트랜스젠더(transgender) : 젠더와 생물학적 성별이 불일치

② 안드로진(androgyne) : 젠더 정체성에 남, 여가 모두 존재

③ 제 3의 성(the 3rd gender)

3. (성적) 관계의 양상

(1) 무성애적 관계(platonic) / 성애적 관계(eros)

(2) 모노가미(monogamy) : 복수의 파트너/연인을 갖지 않는 1:1 애정관계

(3) 폴리아모리(polyamory) : 파트너/연인의 또 다른 애정관계를 인정하는 것. 독점하지 않는 다자간 사랑, 비독점 다자 연애

4. 기타 / Etc.

(1) 커밍아웃(coming out) / 아웃팅(outing) / 인바이팅 인(inviting in)

① 커밍아웃(coming out) : 성소수자가 본인이 속한 사회나 공동체 등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것

② 아웃팅(outing) :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타인에 의해 성 정체성이 폭로되는 것

③ 인바이팅 인(inviting in) : 깊은 유대를 이루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맺을 상대방에게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2) 기타 퀴어 용어

① 6색 무지개 : 전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는 동성애자 자긍심의 상징. '빨주노초파남보' 7가지 무지개에서 남색을 뺀 6가지 색으로 이루어짐.

② LGBTAIQ :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섹슈얼(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무성애자(Asexual), 간성(Intersex), 퀘스처닝(Questioning) 또는 퀴어(Queer)의 약자를 따서 만들어진 조합어. 여러 성 정체성을 호명한 다음, 마지막 퀴어를 상징하는 Q를 붙임으로서 이때껏 호명되지 못했던 다른 정체성들까지 포괄하는 의미가 있음.

③ 퀴어(Queer) : 원래 '이상한', '색다른' 등을 나타내는 말이나, 지금은 성적 소수자 모두를 포괄하는 단어로 사용. 성적 소수자를 지지하는 사람까지 포괄하기도 함.

(3) 동성애공포증(호모포비아, homophobia) / 이성애중심주의(heterosexism)

① 동성애공포증(호모포비아, homophobia)

: 동성애(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지식이 없이 이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 무조건적인 거부감, 혐오 등을 가지고 대하는 것

② 이성애중심주의(heterosexism)

: 오로지 이성애만이 존재하며 옳다고 여기는 태도. 이성애중심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성애만을 '당연'하게 여기며 이성애적이지 않은 모든 성애적 관계나 정체성, 교제, 커뮤니티 등을 부정하며 낙인찍도록 사회화됨.

자료출처

위키피디아(www.wikipedia.org)

트위터의 논 모노섹슈얼 봇(@NoNmonos_bot_kr)

네이버 지식백과(terms.naver.com)

* 위의 용어들은 글쓴이가 사전지식과 여러 자료를 조합해 맞춘 결과이므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변날의 일년살이

- 부제 : 3년차 활동가의 달력 -

1학기

3월

신입 모집 홍보 주력, 소식지 배부

4~5월

자치단위문화제 개최, 영화제/강연회 개최

6월

퀴어문화축제 참여

여름방학

7~8월

레즈비언 문화제 준비

2학기

9월

신입 모집 홍보 주력, 소식지 배부

10월

LGBT 상담 컨퍼런스 주최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공동주최)

9~11월 레즈비언 문화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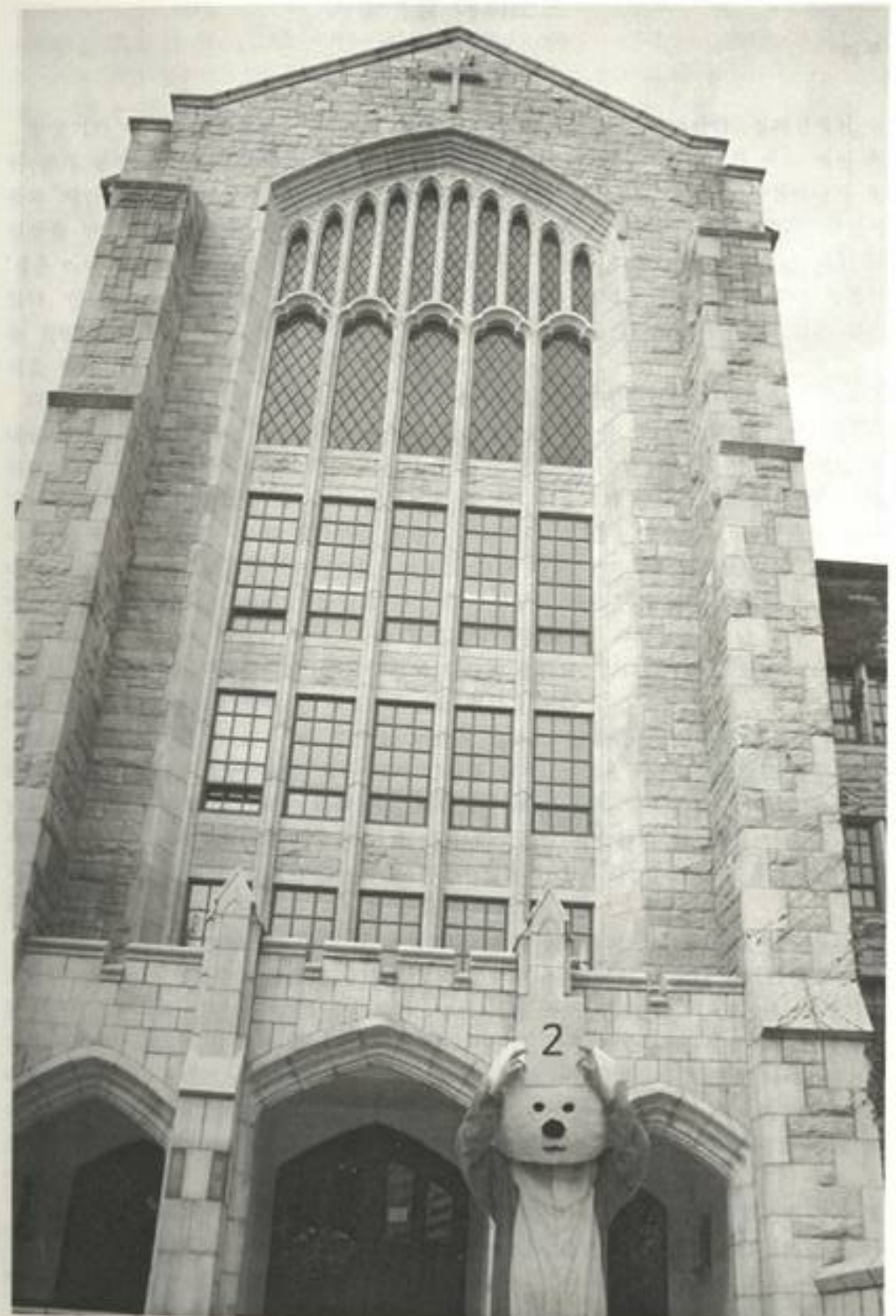
겨울방학

12~2월

LGBT 인권포럼 기획, 진행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덧1) 위에 간단히 쓴 일정 이외에도 회의, 세미나, 외부연대, 상담 진행, 칼럼 기고, 인터뷰 및 취재 대응 등 활동은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덧2) 노는 일정도 있습니다! 개강파티, 문화제 뒷풀이 파티, MT, 봄꽃(술)놀이, 가을출사, 조인트, 체육대회 등 변날러들은 활기칩니다^^



밤공기가 참 좋다. 하늘에 별도 많이 보인다. 오늘은 결혼식에 다녀왔다. 청계천에서 열린 공개 동성 결혼식이었다. 일주일 전, 정독도서관 앞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느 게이 커플과 지인들이 청첩장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우연히 마주쳤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청첩장을 받아들고 왔었다. 그때의 내 심정은 미묘하기 이를 데 없었다. 결혼, 결혼, 살면서 '결혼'이란 단어를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어왔었다. '결혼'을 만지려 손을 뻗어본 적도 많았다. 안면이 없는 커플의 결혼이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를 보내고 왔다. 손을 뻗어 청첩장을 집어 들여다 본 뒤, Y의 유언장이 담긴 주머니에 넣는다. 그녀도 이런 축제 같은 결혼식을 좋아하지 않을까. 오늘도 잠을 못 이룰 것 같다.

내가 Y를 처음 만난 건 대학교 2학년 때 들은 경제원론 수업에서였다. 교수님은 어려운 내용을 설명하고 난 후면 늘 열자리 학생과 토의해보는 시간을 주시곤 했다. 그때 난 Y의 눈을 처음 보았다. 살면서 몇 번쯤 시간이 멈춘 듯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꼭 강의실 전체가 얼어붙었던 것 같다. 한계비용 곡선의 기울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난 항상 경제원론 수업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Y 곁을 맴돌았고, 맴돌았고, 맴돌다가, 사랑을 고백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밤의 공기, 날 바라보던 Y의 모습은 잊히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둘만의 추억이 구석구석 스며든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Y는 모 전자 회사에 취업을 하였고, 난 행정고시 준비를 할 계획이었다. 난 공부 때문에 학교와 Y의 집만을 반복하다가, Y에게 함께 살자고 졸랐다. Y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갈 때면, 그 가파른 경사로 숨이 찬 것도 내 맘을 벅차게 했다.

동거를 한 지 5년 쯤 되는 해, Y는 늘 바쁘게 일하고, 난 자잘한 성취와 좌절을 되풀이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던 중에, 겨우 내가 합격을 하게 되었다. 임용을 한 달쯤 앞둔 때에 Y와 함께 나의 외할머니 댁에 다녀왔다. 바다가 가까운 곳에 일주일 간 머물며 참 여러 생각을 했었다. 곧 서른인테 결혼은 언제 하느냐는 주변 사람들의 말. 그때 난 Y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나와 Y도 결혼을 할 수 있을지, Y의 품 안에서 나 홀로 아득해질 때, 그녀가 던지시 말을 건넸다. 아이를 갖고 싶다고.

Y의 아이에 대한 소망은 전부터 알고 있었다. 게이 친구에게 정자를 빌려서 수정을 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다. Y에게 오래 친하게 지낸 게이 친구가 있었는데 Y는 그를 정자 기증자로 이미 낙점했던 것 같다. 나도 그를 두어 번 만난 적 있는데, 잘생기고 위트 있고 독특하고 성격 또한 좋고, 나중에도 아이를 종종 봐주려 올 사람이라 생각되어 마음에 들었다. 우리의 바람대로 그는 수락을 해주었고, 이제 임신에 도전할 차례였다. 처음에 누가 낳을지를 고민할 땐, 아이를 낳고 싶어 했던 Y가 직접 낳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당시 IMF 경제 위기 탓에 Y가 어렵게 이직을 한 직후라 출산은 내가 맡게 되었다.

Y에게 임신 이야기를 들었을 땐 대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싶었는데 Y는 쉽게 말했다. 큰 주사기에 정액을 넣은 후 관을 통해 삽입하면 되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아하, 생각해보니 이성애자들도 엄청난 언급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었지. 나는 바로 주사기를

사왔다. 어떤 관을 쓸까 고민하던 중에 내가 어릴 때 쓰던 천 기저귀를 묶는 속이 빈 고무줄이 생각났다. 내 배란일이 되자 우리는 도구 준비를 마치고, Y의 계이 친구 집으로 갔다. 그 친구에게 배시시 웃으며 큼직한 주사기를 건넸다. 친절하 그는 조금 후 주사기를 채워주었고, 난 안으로 넣어보기 시작했다. 느낌이 굉장히 이상했지만 연신 웃음을 짓고 묘하게 행복해 보이는 Y를 보니 이 상황이 마냥 즐겁게만 느껴졌다. 그렇게 즐겁게 우리는 반 년 간 주사기 놀이를 하였고, 겨우겨우 임신이 되었다.

열 달이 흐른 후 출산 예정일이 되었고, 나는 아이를 낳았다. 날 많이 닮은 딸이었다. 일 때문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Y가 아이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날 너무 닮아서 어떡하냐며 걱정할 게 기대가 되며 웃음이 피식 나왔다. 내가 기다렸던 사람은 Y뿐이었다. Y와 동거하며, 남자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일반적인 삶은 포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심하게 반대하는 가족과는 의절하다시피 했다. 수술 동의서에도 내가 유일하게 커밍아웃할 수 있었던 사촌 오빠가 서명을 해주었다. 내가 딸을 낳은 것을 어머니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Y는 오지 않았다. 나는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Y는 부장 욕을 실컷 늘어놓았다. 지금 애가 나오고 있는데 박 부장이 결재를 안 해줘서 어떻고, 이런 저런 푸념과 잔소리를 Y를 보니 웬지 부모 역할을 아주 잘 해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와 Y가 여기까지 걸어 왔고, 이제 새로운 동반자와 함께 어떤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말할 수 없을 만큼 설렜다.

내 생각대로 Y는 놀랄 만큼 훌륭한 부모였다. Y는 나를 혼낼 때보다 더 매섭게 아이를 가르쳤고, 더 부드럽게 보듬어줬다. 서류상으로는 아이의 엄마는 나뿐이었지만 아이는 나와 Y의 사랑을 모두 받으며 힘차게 컸다. 엄마와 아빠란 무엇인지, 동성애와 이성애가 무엇인지, 가정환경 조사서에 왜 내 이름만 쓰는지 아이에게 설명하는 것은 슬프면서도 기쁜 일이었다. 이를 모두 이해하고 씩씩하게 크는 아이를 보는 것이 나와 Y의 아주 큰 행복이었다.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대로 시간이 멈춘다면 좋겠다.란 생각을 하며 지내던 중 그 일이 일어났다.

Y는 최근 들어 많이 피곤해했다. 본래 마른 편이었는데도 더 체중이 줄어 수척해졌고 마른기침도 늘었다. 병원에 가보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Y는 차일피일 미뤘었다. 그러다가 여름휴가 첫날에 아이와 함께 병원에 다녀왔다. 검진이 오래 걸려 아이는 먼저 집에 왔고 함께 Y를 기다렸다.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 외엔 별다른 나쁜 습관도 없고 아직 40대 초반인데 무슨 큰 병이 있는 건 아니겠지. 그날 Y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나와 아이는 Y가 입원한 병원으로 갔다.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Y는 입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급격히 상태가 나빠졌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Y를 보며, 난 우리들의 시간을 늘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 법상 가사휴직을 하려면 간호 대상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여야 했다. 난 일을 그만두었다. 늘 Y 곁에 있으며 흘러가는 시간을 잡고 싶었다. 그러나 잔인하게 벅 달이 흘렀고, Y는 나와 아이 곁을 떠났다.

장례식에서 Y의 본 가족들을 만났다. 그들은 나를 모른 척하며 아이와만 싱거운 인사를 나누었다. 가족들은 날 Y를 수십 년 데리고 살며 보험금과 연금까지 갈취해가려는 사람으로 불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나와 아이가 Y의 엄연한 가족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Y의 유언장에 담긴 내용들을 힘에 부친다고

무시할 수는 없었다. 손을 뻗어 다시 유언장을 읽어 본다. 밤공기는 시원하고, 하늘에 별은 많고, 어떤 동성커플은 오늘 결혼식을 치렀다. 아이와 나의 미래도 오늘 이 느낌 같을 거라 확신한다. 얼마나 긴 싸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 생애 가장 큰 행운은 Y를 만난 거라는 걸 내 힘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 난 아이와 Y의 손을 놓을 수 없다.

각자 꿈꾸는 미래상

1. 보리

지금까지 내게 가족은 태어났을 때 주어진 원가족이 전부였다. 그러나 내가 원가족을 정말 '가족'처럼 느껴왔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가족'이 되려면,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내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장기간 시간을 공유하고 싶다는 욕구와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게 현재 가족은 동생뿐이라고 생각해 왔다. 동생은 탄생 순간부터 내게 주어진 가족이었지만 서로의 노력으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동생을 믿고 사랑한다. 동생과 내 삶에서 접점을 갖기를 원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꺼이 노력을 기울이고 싶다. 원가족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구성하고픈 가족이라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야 할지 오래 고민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나는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크다. 왜인지 설명하기는 힘들다. 사람이 왜 아이를 낳고, 키우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의문들 속에서, 아이에 대하여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다면, 내가 낳았다는 이유로 가족이기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 아이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한없이 노력할 것이다. 우리가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로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연히 어느 곳에서 만났다고 하더라도 서로 오래오래 보고 싶었을 그런 관계로 만나고 싶다.

나는 레즈비언이다. 레즈비언이 어떻게 이 한국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정자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입양을 통하는 것도 아직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정자은행이나 입양에 대해서는 내가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알 것 같다. 나는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내가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기를 바라지 않는다. 적어도 알고 지내고 싶으며, 가능한 나와 가까운 사람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어쩌면 나는 '정상' 가족의 청사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 직관적인 생각에는, 나와 알고 지내며, 가끔 아이를 보러 오고, 한 번씩은 아버지의 역할을 해줄 수 있었으면 한다.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던 중 알고 지내던 게이 친구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 역시 아이를 원하고 있는데, 아이의 생물학적 어머니를 알고 지내고 싶다는, 나와 비슷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좋은 대안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었다. 아직은 장기적인 계획일 뿐이지만, 내가 가장 꿈꾸는 대안 가족은, 나와 나의 파트너, 그리고 게이친구와 게이친구의 파트너, 그리고 아이 둘을 갖는 것이다. 내 아이는 두 엄마와 두 아빠를 갖게 될 것이다. 감정적으로 틈이 없을 만큼 사랑을 퍼부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내가 내 동생이 있어서 행복한 만큼, 아이도 좋은 형제나 자매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기대 때문에 두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 역시 큰 것 같다. 구성원이 많은 '슈퍼 대안가족'이지만, 내게는 노력해보고 싶은 이상적인 청사진이다.

실제로는 아닐지라도, 법적으로 아이는 편모 가정에 속하게 된다. 그것은 내게도, 아이에게도 힘든 일이 될 것이라는 걱정을 한다. 늦어도 내가 서른다섯이 되기 전에, 우리에게, 또 다양한 가족상에 대해 더 호의적인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나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을 원한다. 그 가족에 기꺼이 소속되고 나의 감정적, 사회적, 금전적 노력을 아낌없이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한다. 소위 말하는 '정상' 가족은 나에게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짐이었다. 한때는 가족을 원하지 않고 혼자 살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동생을 사랑하고, 파트너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꿈꾸고,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소망을 떠올리면서 다른 청사진을 가지게 되었다. 내 미래에 내가 꿈꾸는 가족이 있기를,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가족이 나이를 가감은 간절할 정도로 생각한다. 나의 정체성이 내 가족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사회 역시 간절히 원한다. 나는 가족을 원하는 레즈비언이다.

2. 유니

Non-Monogamous Relationships: Queer and Open

Forgive me for I am not prepared. I am not even sure about my immediate future, so having to discuss my possible relationships, break-ups, and family life in the distant future is difficult. Some people want marriage while others want a single life. Each way of life is an individual choice, and those choices influence the events that occur in the near future. My choice is to be able to be in an open relationship with a non-monogamous person.

Attempting to permanently settle down to with a man to create a traditional form of family is alarming to me. I am an unconventional person, who seeks stimulating but also comfortable relationships. Some say it has everything to do with irresponsibility and recklessness. Instead, it has everything to do with my nature. Relationships may come and go, and people change. We love many people during our lifetimes, but we can also love many at the same time. Some people we love more than we love others, while at times, people love us more than they love others. Yes, sometimes we are loved less too.

Out of all the forms of relationships I have observed but unfortunately not have experienced all, I am open to being in a non-monogamous relationship. I see myself being in an open relationship for many reasons. Forms of marriage and family system differ depending on the culture, economic system, religion, etc. As people are starting to become more open to different forms of marriage as our generation learns, I think it will be easier to find partners that do not mind being in more than one relationship. I feel that having just one partner limits my character. Being in an open relationship may allow me to be more honest with my partners. I could experience both passionate love and companionship love with more than one person. Some people may argue non-monogamous relationships may be complicated resulting in conflicts. What love does not include dramatic experiences?

In my distant future, I do not simply dream of a wedding. I dream of a life where I experience relationships with many different people, whether or not we choose to be partners. I want to be a friend, sister, brother, mother, father, and more to my partners. Not all my partners probably will be in non-monogamous relationships. I may be the one with more than one partner in my relationships, while my partners may choose to only have me as their partner at that period. I may live with some of my partners, while others I may only see occasionally. As long as they are open-minded about being in a relationship with one or more person, I am satisfied.

3. 케이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상상한다면 어렵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오순도순 사는 것이다. 사실 내가 상상하는 미래의 모습은 이성애자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의 나로서는 가장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집쟁이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부모님께 커밍아웃하기 전에 먼저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다. 그래서 졸업 후에 돈을 모아 결혼할 것이다. 누구나 결혼 전에 결혼 자금을 모으겠지만 사실 커밍아웃 후에 부모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혼식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놓지 않았지만 패션에 조예가 깊은 여자 친구가 디자인한 드레스를 입고 하고 싶다. 그리고 사진을 많이 남기고 싶다. 결혼식이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존스럽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평소에 언제 그렇게 화려하게 꾸며 보겠는가? 즐겁게 축복받는 날이 되고 싶다.

여자 친구와 나는 둘 다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 입양도 출산도 아직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아이를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냥 내가 원하지 않을 뿐이다. 나는 출산이나 입양은 선택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2세가 주는 보람이나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나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원하지 않는다. 보통 결혼을 하면 애는 언제 낳을 거냐 하는 압박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보았기에 나는 오히려 나의 쿼터로서의 삶이 나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준다고 생각한다. 내가 만약 나이가 든다면 자녀를 원하게 될까? 아직까지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상상되지 않을 뿐더러 원하지도 않는다.

이제 내가 상상하는 둘만의 주말을 적어보겠다. 둘이 함께 자다가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자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구경한다. 둘 다 일어나면 함께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 놓고 한 명이 밥을 하면 다른 한 명은 한 주간 밀린 빨래를 하며 아침을 시작한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외출 준비를 한다. 주변을 산책하고 백화점도 구경하다가 점심을 먹고 둘이 좋아하는 게임도 즐긴다.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해서 먹고 치운다. 함께 욕실에 들어가서 씻고 나와서 서로 물기를 닦아주고 잠자리에 든다. 이 루틴이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소망이다. 이렇게 살고 싶다.

둘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생활에 지쳐 로맨티즘을 잃고 싶지 않다. 서로 사랑하면서 비슷한 취미를 공유하며 즐겁게 살고 싶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시간이 흘러서 서로 싸우는 일이 있어도 금방 다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서로를 존중하는 사랑을 하고 싶다.

4. 케일

멀고 불확실한 얘기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결혼하고 아이도 키우고 싶어.

어쩌면 결혼 생활 자체에 대한 로망이 큰 것 같아.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 뜨겁고 격렬하지 않고 포근하고 차분한 느낌이 좋아. 연애와는 또 다른 느낌이겠지. 같이 살고, 맛벌이라고 가정하면 서로 일하고 들어와서 집안 일 서로서로 도와주고 야기 재우고 씻고 끌어안고 누워서 잠결에 웅얼거리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다가 잠드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후다닥 씻고 내가 먼저 일어나서 아침준비를 할거야. (비록 지금은 학교 수업도 안 늦는 날이 없지만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으면 책임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천천히 깨워줘야지. 아침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밤에 못 다한 얘길 더 하면 매일 매일이 너무 행복할거야.

아이도 있었으면 좋겠어. 얘기를 볼 때마다 너무 귀여워서 정말 너무너무 키우고 싶어! 그리고 내 아이는 정말 잘 키워보고 싶어. 우리나라에서는 엄마가 돌이면 아무래도 아이가 힘들어지겠지만 그것조차도 견딜 수 있도록 올바른 사고를 가질 수 있게 키울 거야. 그리고 내 아기는 우리 둘 중 누구를 닮든 간에 아주 아주 예쁘겠지! 만약 우리 둘 중 누군가가 직접 낳을 수 없게 된다면 입양해도 좋아. 쪽쪽이 물고 아장아장 걸어 다니면 진짜 예뻐할 거야 정말로!!!!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난 딸 바보가 되겠지? 우리 얘기 쪽쪽이 내가 물고서 얘기한테 우유 먹일 것 같아.

할 수만 있다면 내 일반 친구들의 아이들과도 어울리게 하고 싶어. 왜냐면 내 친구들은 훌륭하니까, 같이 아장아장 손잡고 놀고 이러면 정말 정말 예쁘겠지! 그리고 좀 자라면 내 친구들과 이모-조카 사이처럼 얘기했으면 좋겠다. 내 얘기 주변에는 좋은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꼭꼭 친하게 두고 싶어. 변날러들도 가끔 집에 데려올 거야. 그 외에는 이제 '나'의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과의 관계를 생각해 봤는데, 난 내 경제력이 생기는 순간 커밍아웃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였을 때는 내 가족이 우리 얘기랑 만날 수 있겠지. 그럼 엄마한테 잠깐 말아달라고 해볼 수도 있겠지. 내 생각에 엄마는 받아들일 것 같아. 동생도 어쩔 수 없이 받아주겠지.

내 아이가 다 커서 대학교에 갈 때쯤 되면 나와 내 파트너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내가 구상해야 하는 미래상이지만 사실 궁금해. 합법적으로 모든 게 인정되는 삶을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

변날 사상 첫 교환학생! 인터뷰

Interviewer : 케이

Interviewee : 유니

자기 소개

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닉네임, 국적, 전공, 한국 체류 계획 등)

안녕하세요! 제 영어 본명은 Eunice Jo Chung이고요 한국어 본명은 정은별입니다. 활동명은 유니고요. 한 달 전까지는 미국 시민권만 있었는데 부모님이 한국 국적이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부하기 위한 한국 시민권을 최근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본인의 정체성을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혹시 정체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떤 반응인가요?

일단 저는 관색슈얼이고요, 젠더퀴어입니다. 저의 직계가족들은 제 섹슈얼리티에 대해 다들 알고 있고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저의 정체성을 환영하려고 노력하고 동성 커플의 프로포즈 영상을 보내주는 등 저를 지지해줍니다. 몇몇 친척들도 저의 섹슈얼리티에 대하여 알고 있고 한 삼촌은 저에게 커밍아웃도 했습니다. 저의 가까운 친구들도 커밍아웃을 하겠다는 저의 선택을 지지해주었고 저와의 관계는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3. 이대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원래 다니던 학교도 여대였고 저희 학교에 이화여자대학교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었죠. 고등학교 때에도 다른 교포 친구들과 함께 이화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 때 학교 분위기와 캠퍼스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화로 다시 돌아와서 가족의 문화와 언어를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 '변날'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제 기억으로는 한국의 퀴어 관련 단체나 커뮤니티를 구글에 검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 내의 퀴어 관련 단체들의 목록이 있는 사이트를 발견했죠. 이화여대 밑에 변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구글에 변날을 검색했더니 변날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찾을 수 있었어요.

5. 한국의 현재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솔직히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퀴어 페스티벌이 있다는 건 몇 년 동안 알고 있었지만요.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잘 몰라서 인권운동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한국 성소수자 공동체의 변화를 만들기 위한 운동의 일부가 되고 싶어서 변날에 가입했습니다.

운동

1. 각자 본국에서의 성소수자 관련 정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결혼/파트너십/의료/주거/보험/상속 등)

미국은 연방법과 각 주의 법에 따라 다릅니다. 동성결혼은 몇몇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아이오와,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뉴햄프셔, 뉴욕,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과 같은 몇몇 주에서만 허용되고요. 이전에는 연방결혼 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이 다른 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더라도 합법화를 거부할 수 있게 했는데 최근에 정부가 연방결혼 보호법 제 3항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동성결혼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받는 것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에서는 법적으로 주거, 보험, 상속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법에도 불구하고, 특히 유색인종인 심대들은 머물 곳이나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2. 성소수자 정치인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베를린 시장, 하비 밀크 외에도 현재 활동 중인 성소수자 정치인들이 있나요? 사회적 시각은 어떤가요?

몇몇 정치인들이 LGBTQI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마크 타카노도 그중 한 명인데요, 그는 유색인종으로서도 최초로 오픈리 게이인 국회의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에서 성소수자를 받아들이는 일이 양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주들이 매우 진보적인 반면, 그렇지 않은 주들은 극도로 보수적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 50개주들이 모두 완전히 LGBTQI 친화적이지 되기까지는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50개주 모두 어떤 의미로 오픈리 LGBTQI인 정치인들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올라가고 싶어 할수록 커밍아웃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미 커밍아웃을 했고 그 주가 매우 우호적이지 않다면 그 정치인은 대중이 LGBTQI에 갖는 부정적인 시각의 변화를 만들 만큼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건 어렵겠지요. 예를 들어 단 한 주의 주지사만이 당선 후 게이라고 커밍아웃을 했고 현재로서는 당선 전부터 오픈리 LGBTQI였던 사람이 주지사나 대통령으로 선출된 적은 없습니다. 또한 내각 안에서도 오픈리 LGBTQI인 사람은 없습니다.

3. 한국에 오셔서 김조광수 결혼식에 저희와 함께 참가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에서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분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하신 바가 있으셨을 텐데, 예상하신 것과 비슷했나요?

매우 즐거웠어요. 저는 사실 혐오자들이 더 많고 LGBTQI나 지지자는 좀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어요. 그리고 틀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매우 기쁘고 침착했던 동시에 식과 공연 중에 신이 나서 들쭉거렸어요. 솔직히 LGBTQI에 대한 분위기가 어떨 거라고 예상하고 오지는 않았어요. 만약 예상 했더라도 놀랄 만큼 다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4. 본국에 LGBT 센터나 성소수자 인권 관련 단체가 있나요? 어떤 활동을 하나요?

미국에는 많은 LGBT 센터나 인권 단체들이 있어요. 대부분 중앙 지부를 갖고 있고 주요 도시로 뻗어져 나가죠. 몇몇은 특정 부분에서만 운동을 하는 작은 단체이고 이 경우에는 큰 단체와 함께 일하기도 하죠. 유색인종만을 위한 단체들도 있는데요, 퀴어 커뮤니티 안에서도 인종 차별 주의가 존재하고 이중, 삼중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 근처에는 '아시아 태평양 퀴어 여성 및 트랜스젠더 연합'이 있습니다. LGBTQI 전문 단체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인권단체는 어느 정도의 퀴어 관련 운동을 합니다. 다른 LGBTQI 관련 단체로는 GSA(Gay Straight Alliance)와 PFLAG(Parents, Families, and Friends of Lesbians and Gays)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절, 학내 GSA에서 활동하였습니다. 퀴어 퍼레이드나 AIDs walk에 참가하기도 했고, 모금도 했어요. 그 동아리는 다른 퀴어나 지지자들을 만날 수 있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다양한 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어떤 단체들은 상담이나 교육에 중점을 두기도 하고, 어떤 단체는 동성결혼 합법화나 퀴어 관련 학교폭력 및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법 제정과 같은 정치적인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5. 본국에서의 퀴어 프라이드 행사는 어떻게 치러지는지 궁금해요!

이건 비밀로 하려 했는데요, 저는 사실 미국에서 퀴어 퍼레이드에 참가해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 퀴어 퍼레이드로 잘 알려진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근처에 살았는데 말이죠. 친구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나 사진들로만 봤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치러지는 행사는 규모가 정말 커요. 아주 크고 화려롭죠. 유명 가수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LGBTQI를 지지하기도 합니다. 이 이상의 정보를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해요.

사회

1. 그럼 이제 정책과는 상관없이, 성소수자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어떤가요? 혐오 단체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은 문화나 종교, 인종적으로 정말 다양합니다. 너무나도 다양하기에 일반화 할 수 없죠. 개인이 어떤 지역에서 있는가에 따라 LGBTQI를 향한 시선은 크게 다릅니다. 보수적인 주에서는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더 적죠. 분명히 혐오단체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혐오단체는 종교 단체 소속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혐오 단체로는 Westboro Baptist Church가 있습니다. 그들은 LGBTQI에 대해 우호적인 교회나 LGBTQI에 대해 우호적인 지역에서 근무한 군인들의 장례식에 와서 시위를 합니다. "하나님은 게이를 싫어하신다."라던가 "하나님은 미국을 싫어하신다."같은 썰말을 들고 나오죠.

2. 문화적으로 성소수자가 다뤄지기도 하나요?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하고 퀴어를 대표하기 위하여 퀴어 문화를 미술 작품, 책, 음악, 영화 등과 같은 자신의 작품과 접목하는 예술가들도 있어요. 미디어 노출이 부족한 퀴어 문화를 위해서요. 대부분의 그런 작품들은 인디이기 때문에 주류 미디어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3. 공교육 내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다뤄지나요?

공교육의 경우, 수업에서 LGBTI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 유일하게 퀴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던 곳은 학내 GSA가 유일했습니다. 몇몇 대학의 교육만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덜 이성에 중심적입니다.

4.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커밍아웃을 한 유명인 있나요?

연예계에는 커밍아웃 한 유명인이 정말 많아요. 스타트렉의 조지 타케이, 가수 락 마틴, 레이본 시모네, 엘렌 드제너러스 등이 있지요. 전부 말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5.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은 적이 있나요? 또는 성소수자 정체성을 놓고 생각할 때, '어느 나라에 가서 살면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부모님을 위해 한국으로 와서 사는 것을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 같이 동성 결혼을 허가하는 나라가 성소수자들이 살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살아왔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떠난다는 것은 저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또한 저는 계속 인권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LGBTQI가 박해받고 동등한 권리를 갖지 못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떤 한 나라에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면 편하게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설령 캐나다로 간다 하더라도 문화 차이가 매우 심할 것 같아요. 그곳은 또 그곳만의 문제가 있겠죠. 사람들은 제가 왜 한국에서 사는 것을 고려하는지 궁금해 할 때가 많아요. 캘리포니아와는 다르게 동성결혼도 되지 않고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법도 없으니까요. 미국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이나 박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한국엔 인종주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포로서 한국의 퀴어 커뮤니티를 위해 일하는 한국인으로 생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

1. 학내 LGBT 서클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의 모든 대학에 변날과 같은 LGBTQI관련 동아리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Mills College에도 각기 다른 이슈에 중점을 두는 여러 성소수자 단체가 있었어요. 몇몇 동아리는 퀴어 커뮤니티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불평등과 차별과 같은 이슈에 대하여 집단 상담 하듯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외에도 좀 더 인권운동을 지향하는 단체들은 시위를 하거나 정치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해요.

2. Butch/femme 나누기도 하나요?

제 생각에 관계에 있어서 성소수자를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에 따라 부치와 펌으로 나누는 경향은 과거에 더 뚜렷했다 생각해요. 요즘은 퀴어 커뮤니티에서 레이블링(labeling)하는 것이 개인의 특성을 제한 또는 일반화하여, 그것에 포함될 수 없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3. 공공장소에서 스킨십을 하기도 하는지...ㅋㅋ

이건 주변 환경, 나이, 성별, 인종, 민족 등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동성커플이든지 이성커플이든지 스킨십이 과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물론 키스나 포옹하는 장면을 보고 나오는 반응은 어떤 커플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성커플의 경우에 스킨십이 과하면 사람들은 너무 성적이어서 보기 불편하다고 할 거예요. 반면 동성커플의 경우에는 호모포비아들이 청소년들이 보고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고 불평하겠죠. 하지만 커플들 중에 좀 더 스킨십을 하는 커플은 항상 존재합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의 경우에는(물론 이러한 것이 맞기 때문에) 동성커플이 키스하거나 포옹하거나 서로를 만지거나 서로의 방에서 자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ㅋㅋㅋㅋ

4. 이반(queer) 커뮤니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요. (ex: 인티넷을 통해 모인다거나, 오프라인 모임도 있거나?)

과거에는 퀴어 커뮤니티가 클럽이나 단체를 통해서나 퀴어 퍼레이드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했어요. 요즘은 인터넷 시대이다 보니 SNS를 통해 온라인 그룹을 만들고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5. 이반 업소(퀴어만이 가는 업소)가 많나요? 어떻게 알고 찾아갈 수 있나요?

퀴어만이 갈 수 있는 장소나 행사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 캘리포니아에 있는 게이 바나 클럽은 생물학적 성별이나 젠더와 무관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 이게 전부 옳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김조광수&김승환 커플 결혼식 후기

- 당연한 날, 어느 멋진 결혼식 -

마루

지난 여름, 방학 초입이었을 거다. 모방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왔다. 김조광수 감독 커플이 어떤 식(式)을 준비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모여 크고 공개적으로 하게 되었다. 거기에 대학생 지지단도 꾸리게 되었는데 함께 하지 않겠느냐. 난 그 취지를 지지하는 입장이고, 그런 복작거림에 흥미도 동하여 큰 고민 없이 수락했다. 그리고 곧 첫 회의가 잡혀 여러 대학의 성소수자 모임 구성원들을 만나게 되었다.

식이 하나의 축제의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라, 그렇게 모인 대학생들은 그 식의 홍보와 그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하고 당일 행사 지원을 돕기로 했다. 식은 9월 초, 식의 틀이 잡혀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8월 한 달간 세 차례 가랑 거리 캠페인을 하였다. 캠페인을 하며 식을 많이 알리고, 대중들의 인식을 조금이나마 엿보고 바꾸어보려고 노력했다.

총대, 광화문 일대 등에서 사람들에게 직접 청첩장을 나누어 주고 홍보엽서와 스티커를 배포하였다. 그와 함께 설문조사도 하였고 야심차게 동성 결혼 퍼포먼스도 하였다. 행인들의 반응은 늘 그렇듯 차창 밖 산 그림자 같았다. 수도 없이 많이 지나가고 있지만 움직이는 걸 느끼지 못하겠고, 우리가 끼고 달리고 있긴 하지만 그곳에만 눈을 두어도 안 되고, 이따금 이거 진짜로 하는 거냐, 영화 촬영하는 건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는 웃으며 답했다.

이윽고 식 당일이 되었다. 청계천 광통교 앞엔 큰 무대가 들어섰고 주변엔 무지개 깃발과 축하의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걸렸다. 식의 시작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하객들이 모여들었다. 김조광수 커플과 기념 촬영을 시작으로 축하 콘서트가 이어졌고, 곧 본 식이 진행되었다. 뮤지컬 형식으로 사랑 고백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두 사람, 케이크도 자르고, 화려한 옷을 입고 가족과 하객을 가로질러 행진도 하였다. 대한민국 민법처럼, 공중과 방송처럼, '동성 결혼'이란 단어를 앞서 언급해오지 않았지만 이 "어떤 식(式)"은 분명 결혼식이었다.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이 공개적으로 한 결혼식의 타이틀은 '어느 멋진 날, 당연한 결혼식'이다. 모인 축의금은 LGBT 센터 건립을 위해 쓰인다. 이 LGBT 센터는 인권 운동을 위한 장소만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방된 복합적인 문화 공간이 될 것이라 한다. 그리고 현재는 센터 건립과 운영을 위한 재단을 만드는 중이다.

이쯤에서, (얼마 전 우연히 보게 된) 어느 학과 동아리에서 발행한 신문의 김조광수 감독 결혼식 기사를 떠올려 본다. 그 글은 공개 결혼식이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거부감을 더 키우고 "단지 주목받으려는 퍼포먼스에 불과한 것"이라 하였다. 이런 유의 비난은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자주 들리곤 했었다.

청계천 위에서, 수많은 하객을 일부러 끌어 모아 축제 형식으로 연 결혼식이 소란과 법적으로 보일지 모른다. 조용히 치를 수 있는 결혼식을 굳이 공개적으로 해서 괜한 논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누르고 있는 가족과 결혼이란 것을 유심히 바라보면, 그걸 고수하는 것에 대한 의문과,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함께 보인

다.

동성 커플이 함께 보내는 당연한 날들 중 하루에, 어느 즐거운 결혼식이 치러졌다. 고루한 규범에 균열을 내는 즐거운 소란에 대해 젊은이들이 기꺼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이런 복작거림은 바로, 결혼 제도를 마주하는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한번 웃고 결혼식 포스터를 다시 본다면, 커플의 어색한 표정부터 눈에 들어올지도 모르겠다.

김조광수 감독 커플

9월 9일 결혼식

광화문 일대

김조광수 감독 커플

광화문 일대

김조광수 감독 커플

광화문 일대

김조광수 감독 커플

광화문 일대

김조광수 감독 커플

광화문 일대

김조광수 감독 커플

광화문 일대

김조광수 감독 커플

광화문 일대

김조광수 감독 커플

광화문 일대

김조광수 감독 커플

광화문 일대

김조광수 감독 커플

광화문 일대

김조광수 감독 커플

광화문 일대

김조광수 감독 커플

광화문 일대

김조광수 감독 커플

광화문 일대

김조광수 감독 커플

광화문 일대

김조광수 감독 커플

광화문 일대

김조광수 감독 커플

광화문 일대

김조광수 감독 커플

광화문 일대

올해는 신입 모집이 흥해서

1. 레이런

커밍아웃이란 으레 그렇듯 가족들한테가 가장 어려운 법이다. 동성애로 인해 소동과 고 모라가 멸망했다고 믿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며, 동성애자를 머리론 이해하되 자신 주변인 은 싫다는, 가장 설득하기 힘든 부류의 포비아. 이는 내 가족들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내 정체성을 숨기며 그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도피처들을 찾아 다녔다. 친구들은 다행히도 나의 정체성을 당연한 것이라 인정해주고 또 내 짝사랑을 응원해주기도 했다. 친구들만이 내가 내 사랑에 대해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이 있었기에 난 숨을 쉴 수가 있었다.

중학생 때 처음 내가 혹시 레즈비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었다. 그건 분명 내 친구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중3 때 만나 아직까지도 나와 연락하는 그 아이는 나를 좋아했다. 지금도 종종 만나서 놀곤 하는데 당사자인 내 눈에도 흰히 비치는 그 감정이 하나도 불편하다거나 이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날 좋아해줘서 고맙다는 감정이 생기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동성을 좋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나와 친구 모두 단지 깊은 우정을 사랑이라 착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었었다.

그 의문이 해결된 건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 친구 때문이었다. 장난 반 진심 반으로 시작한 연애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나는 그 아이만 생각하고 있었다. 맛있는 걸 보면 사주고 싶고, 예쁜 옷을 보면 입혀보고 싶고 뭐든 해주고 싶었다. 사랑의 감정을 동성에게 깊게 느낀 것이다. 내가 커밍아웃한 주변의 친구들은 내가 허구한 날 여자 친구 타령을 하는걸 알고 있었고 그에 아무런 혐오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지독한 팔 불출이라 놀리기 일쑤였다. 그래서 나는 아웃팅이라는 것에 전혀 위험을 받지 않았었다. 유일하게 아웃팅의 위험을 느낀 곳은 가정뿐이었다.

그러나 내가 동성애자의 아웃팅과 그들의 인권, 또 동성애에 대한 존중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어느 날 두 친구의 정말 시답잖은 대화였다. 인사만 종종 하는 같은 반의 친구 둘이 내 앞에서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엔 아주 호의적으로 얘길 해서 내심 뭔가 호뭇했다. 그러나 한명이 웃으며 '더럽다'라는 언급을 하는 순간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었다. 미국의 몇몇 주나 캐나다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었으며 합법화하는 나라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왜 아직도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더럽고, 해선 안 되며, 일종의 정신병 취급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가족한테선 익숙했던 혐오가 친구들한테서 들려오니 그제야 눈이 뜨인 것이다. 그리고 주변의 레즈비언 지인들이 보내주는 동성애 옹호 동영상들을 보며 인권운동에 대해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머릿속에서 번져나갔던 생각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내게 당연히 '대학'에 닿았고 그건 또다시 '여대', '이화여대'로 피졌다. 이화여대는 여대니까 동성애에 좀 더 개방적이지 않을까? 혹시 그런 동아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이대에 들어오는 순간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난 변날에 대한 이야기를 선배한테서 미리 들었고 학문관을 돌다 포스터를 찾아냈다. 그렇게 난 변날에 왔다.

아직 모든 이화인이 레즈비언에게 개방적인 것은 아니다. 물론 여대다보니 타 대학에 비해 이에 좀 더 관대하고, 이렇게 존재감 있는 관련 동아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기에 우리는 열심히 활동하는 게 아닐까? 운명처럼 들어온 여대, 그것도 이대, 운명처럼 들어온 변날.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바꾸게 될 나비의 날갯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동성애와 이성애는 둘 중 하나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것을 언젠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변날 파이팅!

2. 모카

“내 여자 친구야.”

2004년 여름, 어느 날처럼 교실 뒤편에 앉아 그녀에게 줄 편지와 일기를 쓰고 있었다. 하트로 가득한 편지를 엮을 만큼 짓궂지는 않았다.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멀어진 것은 내가 그 말을 한 뒤부터였다. 아무 것도 이상할 게 없었던 것이, 순식간에 이상해져버렸다.

그 날 이후 나는 내가 사는 세상을 둘로 쪼개버렸다. 하나는 전설할 수 있는 곳, 다른 하나는 죽어도 전설할 수 없는 곳. 나는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처럼 사는 법을 배워야 했다.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시는 학교 안으로 가져오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것이 유일하게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나의 성장은 줄곧 그녀들과 함께였다. 둘만이 축하할 수 있었던 수많은 기념일과 여섯 번의 헤어짐, 그리고 그들을 만나는 시간 동안 이미 두 세상 다 나만큼 커져버려서 합쳐지는 것은 쉽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이 없었기에,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끈질기게 이중생활을 유지한다.



사실, 한 사람이 매 순간 일관된 태도로 모두를 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당신이 온갖 어리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도도한 표정으로 집밖을 나오거나, 집에서는 발 한마디 없고 짜증으로 일관했던 당신이 학교에서는 가장 수다스러운 친구가 되는 것처럼, 나도 그렇다. 애인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변했다가, 일상으로 돌아오면 열심히 공부나 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나는, 누구나 한번쯤 하는 ‘여자 친구 자랑’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어린 마음에 주어를 남자로 바꿔서 시도해본 적은 있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는 것 같아 개운치 않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마음껏 자랑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 이 사람이 내 여자예요, 이 사람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정말,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었던가. 휴대폰 하나 붙들고 수십 가지로 표정이 변하는 내 얼굴을 보며 ‘뭐야, 남자친구야?’ 하는 당신이나, 모처럼 한껏 꾸미고 집밖을 나서는 ‘남자친구 만나러 가?’ 하는 당신이나, ‘어떤 스타일의 남자가 좋아? 근육 많은 남자? 가느다란 남자?’ 한다든가, ‘나중에 결혼하고 아기 낳으면’ 한다든가, 아냐, 아냐 하다 포기하고 ‘응, 남자친구야’ 하면 대뜸 ‘사진 보여줘, 사진! 잘생겼어?’ 한다든가.



누군가 나를 솔직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솔직하게 대답하고 싶다. “다 아니야, 난 착하고 마음씨 따뜻한 여자가 좋아, 지금 그런 여자 만나러 가. 세상에서 날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이야!”

이리 저리 치이며 작게, 작게 난 상처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곧 무더져서 단단한 굳은살이 됐다. 적당히 녹아서 사는 법도 배웠다. 저 사람들에게겐 저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남녀의 사랑을 나누고 자기 주변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적어도 내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을 테니까 흘릴 것은 흘리고, 주울 것은 주우며 적당히 웃어 넘겼다. 그래, 내 욕심이었나 보다. 이제야 인정하지만, 이중생활을 택하는 대신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런데 나는 왜 여기에 와있을까. 어찌됐든 나는, 정말 어찌면 평생 레즈비언으로 살아야할 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그렇게도 못나 보일 수가 없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데스티니! 예쁘거나 잘 생겨 보이는가? 나도 내 마음을 어쩔 수가 없다. 줄곧 여자에게만 끌려 온 어쩔 수 없는 내 마음을, 개중에도 키 크고 마른 여자가 좋았다가, 작고 통통한 여자가 좋았다가, 취향마저도 요동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고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가끔은 심술이 나 나를 한 번 바꿔보라고 하고 싶다. 모든 걸 꿰뚫어본다는 무릎팍 도사에게 가면 걸모습만 보고 내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

들어온 지 겨우 한 달 반 남짓, 변날은 나에게 꽤나 좋은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지고 따뜻해지는 곳.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미래의 나를, 그리고 어찌면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갈 모든 이들을 아주 조금이나마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이의 사랑이 온전히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었으면.

3. 유니

Coming Out Again

Coming out has always been a difficult process, ever since, we first "came out" of our mother's womb to when we came out to ourselves by coming to terms with our sexuality. Even after those coming out experiences, we still have difficult moments when we come out to our family members, friends, and other acquaintances.

It was never easy for me the first time I came out to my mother or my father, and I realized that it is still not easy coming out to friends and people I meet during my lifetime. Many times, the discomfort comes from my judgment of how they will respond. Despite my judgment,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accepting of me, despite of their generation, culture, and education. I realized for me to accept myself, I must love myself because the haters will not disappear.

I came out to my mother first, before I came out to anybody else. I was a middle school student, a time when hormones affect everything. I was confused about my sexuality, but I was also worried and full of fear. There were so many questions running through my mind. I went to the only person I could go to, my mother, my friend, and my teacher, who always listens to my problems. I was young and did not think so thoroughly on how to talk to her about my emotions, so I just blurted out how she would feel if one of her daughters is attracted to the same sex. I do not regret asking her the question because I found a safe space in her response. She said that my sexuality would not make a difference in how much she loves me because she does not care about my sexuality. She is right. My sexuality should not matter to people because it is part of who I am. My sexuality does not determine my personality.

Coming out to my father was an extremely long process because I feared that he was homophobic. In my sixth year of elementary school, I borrowed a book from the children's section of the library about a kid with two mothers. I excitedly told my father that the book was a true story of a family very different from our own. He took the book away saying that it will influence me negatively and lead me down the wrong path. If only then, he knew how wrong he was. I did get to read most of the book before he took it away from me, but the book did not influence me. Rather my interest in the topic and my confusion and curiosity about my own sexuality influenced me to borrow the book, so I can find comfort in the people who are similar to me.

After I left home for college, I was able to gain more confidence due to the safe environment Mills College provided. Eventually, I did come out to my father.

It was only last summer, when I came out to him. My father and I were at the hospital with our grandmother. I was going to return to school soon, but I wanted to come out to my father before I left home. If he did not accept me, we both would have couple of months to figure things out, whether he chooses to accept me or I choose to leave home.

I started by telling him how much I loved him and asked him if he remembered the incident years ago, when he took a library book away from me because it was about a family with two mothers. I started to cry, and I could not stop the tears from flowing. I started to tell him that I was attracted to people regardless of their sex meaning that not only was I attracted to the opposite sex, but I was also attracted to those who did not identify as male. My dad tried his best to understand me, and said that he learned a lot while he created a family in the U.S. His beliefs changed with time, including how he viewed same sex couples. He joked if I wanted a sex change. I do not think my dad understands my sexuality yet, but he still loves me. He still has a long way to go, but as long as I have a home in his heart, I am satisfied with where we are together.

I also have a younger sister. I never had to directly come out to her. She is five years younger than I am. I always use to talk about the discrimination against sexual minorities, and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the rights of everyone despite of their sexuality. Because of these situations, I think she figured out that her sister was not heterosexual. Even recently, she sent me a video of a guy proposing to his boyfriend. She said the video was sweet. The marriage proposal was sweet. However, what made me cry while watching the video was that she knew how much the video might mean to me.

These are my coming stories within my family: to myself, my mother, my father, and lastly to my sister five years younger than me. Now, I am coming out to those reading my story. Other than the coming out stories in the past, I know that I will have more coming out moments in the future. Coming out is a never-ending process because people will most likely always assume that a person is heterosexual. It is more like a continuous journey on a yellow brick road, rather than an instant moment of stepping through a mirror to wonderland from another world.

4. 케이

처음으로 성소수자 관련 커뮤니티를 접한 것은 모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 관련 단체였다. 들어가서 가끔 구경하다가 어느 카페와 같이 등업이 귀찮아서 그만두었지만, 당시 나는 중학생이었고, 어떤 기사를 통해서 내가 레즈비언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같은 기억나지 않지만 모 언론에서 보도한 청소년 레즈비언은 인정받지 못해서 집 밖을 나돌며 힘들어 한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다. 그 때 11시까지 학원을 다니며 살아가던 나와는 뭔가 동떨어진 느낌이었다.

자신의 퀴어 정체성을 깨닫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건 스스로를 성소수자로 인정하는 일 같다. 이는 자신을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지탄받는 존재로 설정하는 첫 경험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킬 수 있게 하는 힘은 자아에 대한 강한 믿음이나 그 존재를 지지해줄 수 있는 바른 교육이다.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성소수자 관련 답문이 나올 때 “애들이 불까봐 무섭다.”, “애들이 이거 보고 동성애자 되면 어떻게 하려고...”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참 우습다. 청소년은 생각보다 그렇게 무지하지 않다. 이러한 주장은 청소년을 항상 무성적인 존재로 보는 터부에서 비롯된 것인가? 물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자는 게 아니라 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무지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중고등학교 때의 나는 딱히 학교에 좋아하는 사람도 없었고, 커밍아웃도 거의 하지 않고 그저 공부만 했기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지는 않았다. 레즈비언이라고 하면 괜히 소문나고 교무실 불려가고 할 것 같은데 사실 그냥 별일 없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의 일이었다. 담임선생님이 인터넷에 있는 자신의 카페에 들어가 보라고 하셨던 것 같다. 들어가 봤더니 그냥 평범하게 교과 관련 이야기들이었다. 심심했던 나는 과거에 게시되어 있던 글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본 것은 많은 신앙 관련 글들... 그 뒤에 본 것은 동성애가 왜 나쁜지에 관한 글이었다. 그 글의 댓글 창에서는 검색을 해서 들어왔는지 다른 사람들이 댓글로 반박을 하고 있었고 선생님은 거기에 호모포비아적 댓글을 달고 계셨다. 평소에 선생님의 신앙심이 정말 투철하다 생각했지만 그렇게 확실하게 호모포비아적인 면을 보니 미칠 것 같았다.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진심을 다해 대해주시는 분이셨기에 더욱 슬펐다. 인터넷으로는 이런 글을 올리면서 걸으려는 착한 척, 친절하 척한 것인가 하는 배신감마저 들었다. 나는 내 정체가 탄로 날까봐 댓글하나 쓰지 못했고 속상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도 없었기에 힘들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당시에 와 계시던 교생선생님께 고민 문자를 보냈다. 교생선생님은 내가 누군지 알려고 하시기도는 잘 위로해주셨고 큰 문제없이 그 한 해를 보냈다.

무서운 것은 학교에서 저런 일이 있을 때 특히 초, 중, 고등학교일 때 학생 입장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업하시는 선생님의 포비아적 농담에 다른 학생처럼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왜 항상 이렇게 내가 짓고 싶지도 않은 표정을 지으며 있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변날에 들어오게 된 계기인지도 모르겠다. 나 혼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 없었기에 답답했다. 변날의 타이틀 뒤에 숨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나로서는 이것이 최선이다.

5. 케이

신입글을 어떤 주제로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 뭔가 특이하고 재밌는 걸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변날의 신입으로서 나에 대한 글을 쓰자면 역시 변날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조금 뻘하고 역시 예찬이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좋은 게 많았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역시 좋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학교 입학보다 변날에 먼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1학기 내내 학교 생활 전반보다 변날이 더 익숙했어. 신입글이라는 말이 오히려 나는 재밌어! 현재의 변날 내에서는 그래도 오래 있던 편에 속하거든.

한 학기와 두 번의 방학 동안의 변날 생활을 거친 나를 돌아보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고등학교 때에는 친구하고 귀여운 얘기를 할 때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목소리를 있는 대로 낮추고, 단어 선택도 조심조심해서 하곤 했는데 이제는 어디서든 그냥 원래 크기의 목소리로 말해. 변날 면접을 보고 나서 처음 받았던 문화제 자료집은 서랍 댄 밑에 칸에 있는 대로 쑤셔넣고 덮어서 감춰었는데, 이제는 김조광수 감독님 결혼에 대한 종이도 방에 그냥 아무렇게나 늘어놓구. 다른 사람, 그게 누구든, 그 사람들의 시선에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맡기지 않게 됐어. 퀴어 프라이드가 무엇인지 스스로 느낀 것 같아. 그리고 그게 내 변날 생활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 중 하나야.

또 잘 곳이 필요할 때나 시험기간에 밤을 지새 곳 필요할 때 집처럼 사용하는 낯방이 있지. 진짜 좋아! 다른 변날러와 같이 시험공부하고 서로 잘 때 시간 맞춰서 깨워주고 하면 편해. 그게 아니어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 우리가 열심히 홍보하는 프린터나 장판 같은 거ㅋㅋㅋㅋ 진짜 집보다 더 집 같아.

이 외에도 변날은 나에게 고작 한 학기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걸 줬지. 변날러들도 너무 좋고, 변날러 이외의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해 주고, 일하면서 사람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되고, 이렇게 말하면 좋은 점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힘든 일도 많았지. 동아리 방을 드나들 때의 아웃팅 문제라거나, 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날에 남아 있는 건 얻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야. 솔직히 나는 입학 전부터 변날러였기 때문에 변날을 나가게 되었을 때의 내 대학 생활이 상상이 안 돼. 나한테 변날은 너무 커... 좋은 실든 말이야.

벗들이 이 자료집을 읽고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이만큼 읽어줘서 고마워. 우리 더 노력할게.

6. 흥연

당신 옆에 이런 친구 많죠?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릴 때 동생이 엄마 화를 피해서 도망가면 암전히 동생을 잡아다 바쳤다고 한다.

유치원 때 유치원 옥상 난간 아래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걸 좋아했다.

사람들이 개미떼같이 보여서.

초등학교 때 구구단 외우는 게 싫었다. 때 맞는 게 더 싫어서 다 외워가긴 했지만.

중학교 때 교복 색이 안 예뻐서 너무 싫었다. 지금도 싫어하는 색깔이다.

고등학교 때 교정에 꽃나무가 많아서 좋았다.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친구들은

때 봄마다 엄청 고생했다.

고3 때는 친구들과 선생님을 골탕 먹이면서 놀았다. 만우절은 우리들의 축제였다.

수능 날 써갔던 도시락을 조금 남겼다. 시험장 화장실은 추웠다.

졸업식 날 사진을 찍어야 해서 걸옷 벗는 게 싫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추웠다.

대학 입학식 날 대강당 계단이 높아서 멍때렸다. 지금도 계단 올라가기 전에 한 번 올려다보게 된다.

대학 재학 중인 지금 아침엔 이불에서 벗어나기 싫고,

수업 들을 때 교수님 말이 빠르면 짜증나고,

시험 보기 전 날 시험 보기 싫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시험 끝나면 자리가거나 친구와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학점 나오길 기다리며 자바 업데이트 메시지가 계속 뜨는 유레카를 욕하고,

성적표가 집으로 오는 게 싫어서 친구 자취방으로 주소를 바꿔놓을까 생각해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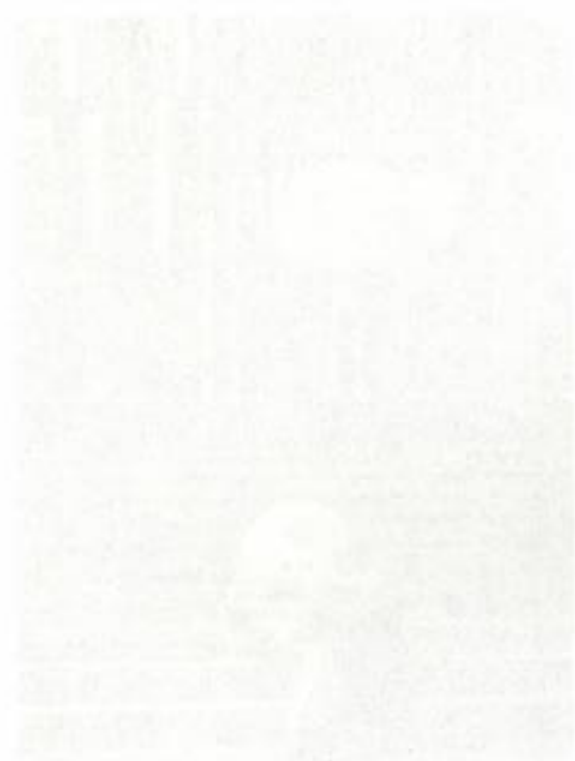
성적 잘 뜨면 기분 좋고, 교수님이 학점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짜증나고,

과제 폭탄 맞으면 다크서클이 1cm 쯤 늘어나는

나는 성소수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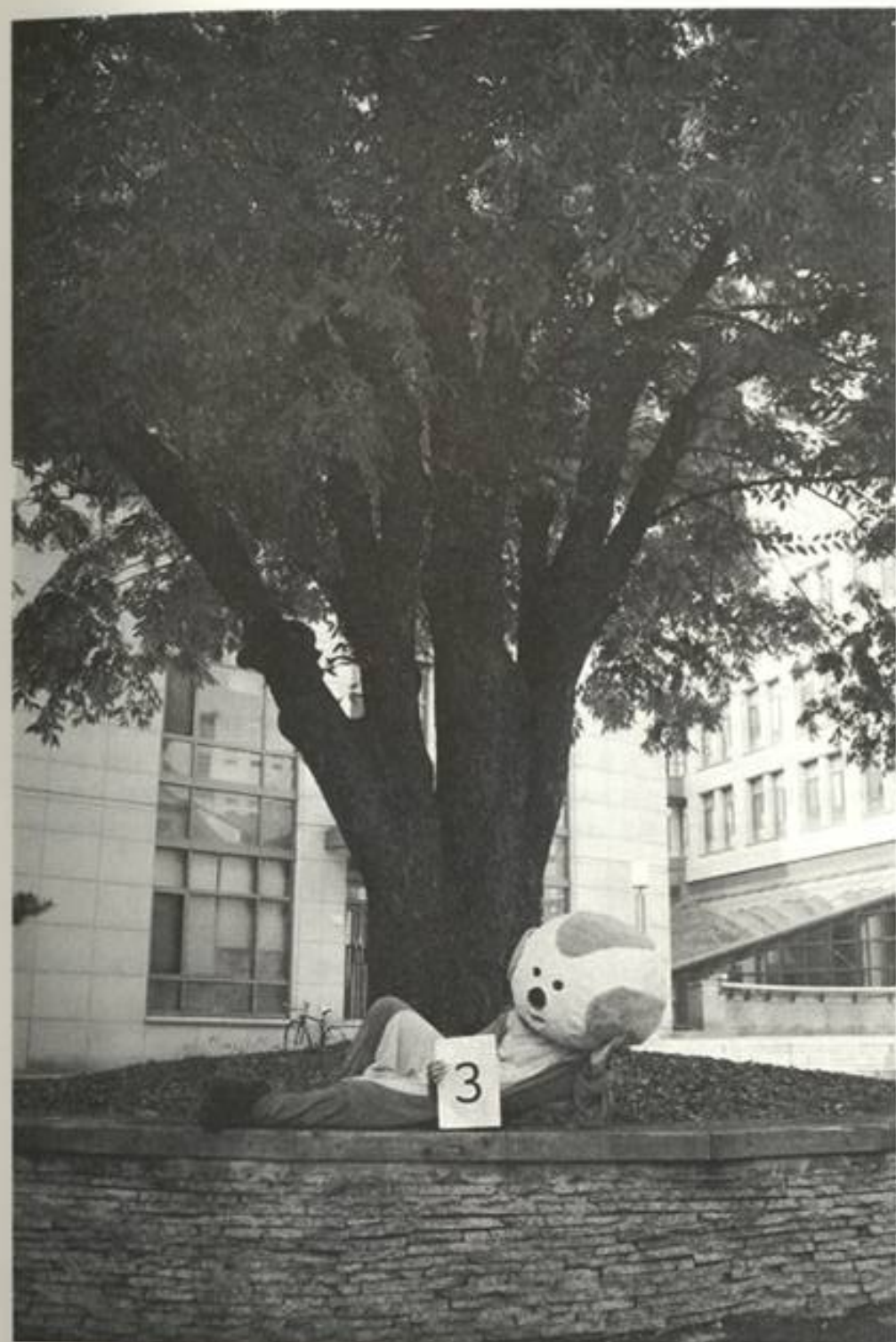
따라가 보았습니다.
망구스 씨의
한가한 주말



신라호텔로 이동

호텔 스무살

할주 15대



올해의 이슈

1. 마포레인보우연대 현수막 사건 (2012.12~2013.10)

‘지금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 열 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다’
‘LGBT(성소수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

마포구 도시환경과는 2012년 12월 지역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이하 마레연)가 내걸려던 현수막에 대해 게시를 불허했다. 현수막의 내용은 ‘지금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 열 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다’,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 두 가지이다. 마포구는 현수막의 내용이 직설적이고 과장되었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마레연은 이에 반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원회는 2013년 6월 구청장에게 “광고물 내용이 성소수자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배제하지 않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와 더불어 시행 여부를 90일 안에 회신하라고 통보했다.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권고 기간이 끝난 2013년 9월 마레연은 자체적으로 마포구에 인권위의 권고와 관련한 진행사항, 인권 차별적 행위에 대한 사과, 권고 기간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해명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일단 ‘LGBT,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허가하는 반면 ‘이곳을 지나가는 열 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이외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¹⁾

2. 인도 제약회사 ‘노바티스’ 패소 사건 (2013.4)

“People Not Profit(이윤보다 생명이다).”

2013년 4월 1일, 2006년부터 시작되어 길게 끌어온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특허여부와 인도특허법을 둘러싼 소송이 드디어 결론이 났다. ‘글리벡’에 특허를 가지고 있는 노바티스는 패소했고, 인도는 복제 약을 계속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 소송이 주목할 만 한 점은, 인도의 특허법과 ‘세계의 약국’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120개국에 넘는 개발도상국에 공급되는 에이즈치료제 90%가 인도산이고, 전 세계 에이즈치료제 50% 역시 인도산이다.

1) 참고,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공식 블로그, <http://maporainbow.net/>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도의 특별한 특허법 덕분이다. 거대 제약회사들은 성분만 살짝 바꿔 자신들의 특허를 거의 영구적으로 유지하려 한다. 그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비싼 약값 때문에, 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죽어간다. 인도 특허법은 일부 성분만 살짝 바꾼 약에 새로운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법 덕분에 인도는 값싼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People Not Profit(이윤보다 생명이야).” 매년 1400만 명이 비싼 약값 때문에 예방 가능하거나 치료 가능한 병으로 죽는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인도특허법이 지켜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특허법 모델로도 검토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한다. 7년간의 싸움 끝에 얻은 귀중한 승리이다.

3. 민주당 차별금지법 발의 철회 (2013.4.19)

※ 포괄적 차별금지법 ※

대한민국《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필요에 의해 여러 차례 입법이 시도되었으며, 2012년 11월 민주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열 여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제 발의되었다. 그동안 입법이 어려웠던 것은 이 법의 내용 중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이 법이 발의된 이후로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를 필두로 한 반대 세력과 성소수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지 세력의 논쟁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2013년 4월 19일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강한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철회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었다. 이들은 이번 철회가 포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여 의사를 밝히면서,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철회 동의를 전달하며 각각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재논의를 통한 단일안을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이들에 의하면 발의 이후 수많은 항의전화와 매일 때문에 업무 방해가 심각했다고 한다. 더불어 인터넷 상에서 이들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이어져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함께 발의했던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 나이지리아 동성애탄압 법안 통과(2013.5.30)

※ 처벌 가능한 대상 ※

- 동성애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에서 활동한 사람 (최대 10년)
- 공적인 장소에서 동성 간에 친밀한 애정표현을 한 사람 (최대 10년)
- 동성애 옹호 단체를 설립한 사람 (최대 14년)
- 동성 간 유사 성행위 또는 성행위를 묘사한 공연을 한 사람 (최대 10년)
- 동성 부부의 결혼을 돕는 사람

나이지리아에서는 동성 결혼 금지뿐 아니라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단체를 처벌하는 내용까지 담긴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일명 ‘동성애 탄압’ 법안이다.

나이지리아의 인구는 약 1억 7000만 명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때부터 동성애를 금지해온 나이지리아는 국민 대부분이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

이 법안이 발효되면 명시된 조항에 관련한 행동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성애에 관한 모든 행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그를 돕는 사람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성애에 관한 가장 강력한 법이기도 하다. 국가 전반에 깔려있는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개인적으로 가해지는 직접적인 폭력도 법에 의해 묵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나이지리아 안에서 동성애자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53111243099557&outlink=1>

그는 자살 이전에 군 생명의 전화에 다섯 차례에 걸쳐 도움을 청한 적이 있다. 그는 생명의 전화 상담관에게 '부대에 자살 시도를 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도움을 청했으나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동성애가) 이렇게 부끄러운 죄인데 어떻게 고개를 뒤흔들고 살고 싶겠습니까.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는 장례식이건 뭐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고 한다.

10. 군형법 폐지 운동(2013.3~2013.6)

'대한민국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군형법 제92조 6항 -

'대한민국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 6항의 내용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문제점은 성폭력 범죄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닌 합의된 개인이 한 성적접촉도 처벌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아래는 이에 대한 사건 사고를 정리한 것이다.

1) 군형법 폐지 입법청원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도 위배되고, 동성애 사병 때문에 국기문란이 벌어졌다거나 전투력이 저하됐다는 얘기를 들어 보지 못했다.'

- 김조광수 감독 인터뷰 중 -

'수많은 나라에서 합법적인 사랑이 왜 처벌의 대상이 돼야 하는가.'

- 진선미 의원 인터뷰 중 -4)

4) 파이낸셜 뉴스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306260100258760014626&cDateYear=2013&cDateMonth=06&cDateDay=26

김조광수 영화감독, 진선미·장하나 민주당 의원, 김제연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해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013년 6월 26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군형법 제92조 6항의 폐지를 촉구하는 5690명의 입법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들이 이 조항에 대해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이 조항이 합의된 성적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며, 군대 내 성소수자들을 잠재적인 성추행범으로 오인하는 법이고, 국내외 인권에 관한 법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2) 군형법 폐지 반대 기자회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차별금지가 아니라
동성애를 비롯한 독소조항에 대해 정당화·합법화하는 법안"

- 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대 대표 홍영태 인터뷰 중 -

"동성애나 성전환 같은 문제는 개인의 양심과 가치판단의 문제이며,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한다는 것은 양심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

- 바른성문화추진국민연합 사무국장 김광규 인터뷰 중 -5)

한편,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바른교육교사연대, 바른성문화추진국민연합⁶⁾ 등이 포함된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에서는 동성애 입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로서 2013년 8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대 운동을 진행했다. 이들이 군형법 폐지를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는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생각은 개인의 양심과 가치판단에 달렸으며, 다른 것과 포괄적으로 묶어서 생각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의 74%가 반대하기 때문이다.

5)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6267>

6)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441454>

11. 러시아 반동성애법 통과 및 혐오범죄 급증 (2013.6.11~)

‘동성애자들은 모두 이 꼴이 날 것이다.’

- 러시아 동성애 폭력사건 이후 가해자의 말 중에서 -

6월 러시아 동부 우랄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고로딜로프(21)는 집까지 태워 주겠다는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가 끔찍한 일을 겪었다. 친구의 지인이라며 차를 몰고 온 3명은 고로딜로프의 집이 아닌 공동묘지로 그를 끌고 가 그가 동성애 행각을 벌였다고 추궁했다. 이들은 고로딜로프를 구덩이에 처박고 오줌을 끼얹은 뒤 묘지 앞에 박힌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지고 끌고 가도록 시켰다. 그들 중 한 명이 웃으며 외쳤다. “동성애자들은 모두 이 꼴이 날 것이다.” 7)

세계적으로 동성애 합법화 바람이 불고 있는 데 반해 러시아에서는 2013년 6월 11일 ‘비전통적 성관계 선전 금지법’이라는 반동성애법을 통과시켰다. 총 437명 중 기권 1명을 제외하고 436명이 찬성한 것으로 볼 때 거의 만장일치의 결과이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개 장소나 언론매체를 통해 비전통적 성정체성 주입하는 행위 및 비전통적 성관계를 매력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행위, 전통적-비전통적 성관계의 가치가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법을 위반하면 5만루블(14만원)~100만루블(3,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외국인은 벌금형과 함께 추방된다. 이 밖에도 동성애를 유지하는 부모의 친권 박탈, 동성애자 헌혈 금지를 추진하는 등 동성애 반대 움직임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한편, 영국 경제신문 파이낸셜타임즈는 ‘동성애 선전 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러시아에서 동성애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원래 동성애 혐오 정서가 강했으나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사실상 정부의 묵인 아래 더 많은 이들이 폭력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최근 러시아에서 열린 게이 행진에서는 군경이 지켜보는 가운데 반동성애 시위자들이 퍼레이드 참가자들에게 공공연하게 폭력을 휘둘렀다. 그러나 별다른 처벌이 가해지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동성애 차별을 합법화한 것으로 보인다.

7)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308/h2013081903340522530.htm>

12. 미국 연방대법원 동성커플 평등권 보장,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재개(2013.6.26)



2013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결혼보호법’이 위헌이라고 인정하였다. 이 결혼보호법은 각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더라도, 연방 차원의 결혼 관련 혜택과 인정의 대상은 오직 이성간의 결혼만으로 제한하는 법이었다. 이에 동성결혼이 가능한 주에 거주 중인 동성 커플은 이성 결혼 커플과 마찬가지로 혜택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같은 날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 주의 헌법 개정안(주민발의안 8호, Proposition 8)에 대한 주민들의 항소심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주민발의안 8호란, 캘리포니아의 주민들이 동성커플의 결혼에 반발하여 남녀의 결혼만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의하여, 캘리포니아 주헌법을 개정한 것이었다. 이 판결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한번 빼앗겼던 권리를 다시 되찾게 되었다. 동성결혼이 다시 가능하게 된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각 주가 서로 다른 제도를 가지고,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미국 전체를 동성 결혼 허용 국가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결혼보호법’이 차별적이라는 사실을 직접 인정하였다는 것, 그리고 미국 내 가장 많은 커플들이 살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다시금 동성 결혼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13. 미국 재무부, 동성 커플에게 세제 혜택 제공 (2013.8.29)

지난 6월 결혼보호법 위법 판결 2달 만에 미국 재무부는 동성커플에게도 본격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직장 의료보험과 관련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파트너가 죽었을 때 부동산 상속세도 감면된다. 또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간 냈던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따로 계산되던 소득이 합산되어 계산되면서 오히려 개인 소득으로 집계될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언론의 우려도 있으나, 세금의 증감과 상관없이 보다 실질적인 면에서 파트너로 인정받았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4. 김조광수, 김승환 공개 결혼식 (2013.9.7)



2013년 9월 7일,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김조광수 영화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의 공개 결혼식이 열렸다. 하객으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민주당 전선미 의원, 하리수·미키정 부부 등이 김조광수 결혼식에 참석했고 약 1000여명의 시민들이 몰려 이들의 결혼을 축하했다. 김조광수 결혼식에는 영화감독 변영주, 김태용, 이해영이 공동으로 사회를 맡았다.

이날 김조광수 감독은 “열다섯 살 때 내가 게이라는 걸 깨달았다. 주님께 고쳐달라고 매일 빌었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말 한 번 제대로 걸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언젠가는 당당하게 사랑하고 싶었는데 9년 전 그 사람을 만났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승환 대표는 “19살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둘만 있어도 행복하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모든 걸 가능해준 게 바로 김조광수 감독”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조광수 감독은 트위터에 곧 서대문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조광수 혼인신고에 대해 서대문구청은 “동성 결혼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접수 자체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구청은 일단 김조광수 혼인신고를 받은 후 법원에 해석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결혼식에는 한 50대 남성이 결혼식에 오물을 투척해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 남성은 기독교 신자임을 주장하며 성경 말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달 여 뒤인 10월 20일 한 교회에 찾아가 예배 도중 오물을 투척하여 다시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이날 경찰은 폭행 혐의 적용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기독교 신자로서의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15. 베트남 동성결혼 금지조항 폐기, 합법화 추진 중

베트남이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2000년 개정된 베트남 혼인가족법은 동성결혼 금지를 명시하고 있었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유교 문화 속에서도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가두행진 등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런 여론을 감안하여 동성 결혼에 부과되던 벌금을 아예 폐지했다.

베트남 일간지 전찌(Dan tri)는 6월 27일 법무부가 동성간 결혼금지조항을 폐기하는 혼인가족법 개정안을 마련, 부처 협의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동성 결혼을 전면 인정하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동성 결혼을 당장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많지만 차별을 막고 동성간 '동거'에 따른 재산, 자녀양육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할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법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 실무위원회는 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앞서 관련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네덜란드와 캐나다,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도 동성 결혼 합법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들 국가의 사례를 준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세계 결혼 합법화 동향

동성 결혼(同性結婚, 영어: same-sex marriage)은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동일한 성별을 가진 두 사람 사이에 법률상, 사회상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을 말한다.

20세기 후반부터 LGBT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전 세계 10여개 국가에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에 기초하여 동성 간 결혼을 전면적으로 혼인의 형태로 포섭하고 이를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20여개 국가에서 동성에 동반자 관계를 혼인관계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시민 결합(civil un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 (허용 연도)

네덜란드(2001)-세계 최초로 인정, 벨기에(03), 캐나다(05), 스페인(05), 남아공(06), 노르웨이(09), 스웨덴(09), 포르투갈(10), 아르헨티나(10), 아이슬란드(10), 덴마크-최초로 동성결혼을 인정한 나라<1989> (12), 뉴질랜드(13), 우루과이(13), 브라질(13), 프랑스(13)

• 일부지역에서만 시행하는 국가

미국: 매사추세츠(04), 코네티컷(09), 아이오와(09), 버몬트(09), 워싱턴 DC(09), 뉴햄프셔(10), 뉴욕(11), 워싱턴(12), 메인(12), 메릴랜드(13), 뉴저지(13), 델라웨어(13), 로드아일랜드(13), 메인(13), 미네소타(13), 캘리포니아(13), 하와이(13)
멕시코: 멕시코시티(10), 키타나로오(11), 콜리마(13)
브라질: 알라고아스(12)
영국: 잉글랜드†(13), 웨일즈†(13)
호주: 수도 특구†(13)

• 외국(타 지역)에서 한 동성결혼 인정, 자국(지역) 내에서는 미 시행 국가

이스라엘
미국: 캘리포니아(2008년도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나, 다시 금지했다가 올해 6월 금지 해제)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행한 결혼만 인정)
네덜란드: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아루바 (네덜란드에서 행한 결혼만 인정)

• 시민 결합(파트너 등록제)시행 국가

그린란드(1996), 프랑스(1999), 독일(01), 핀란드(02), 룩셈부르크(04), 영국(05), 뉴질랜드(05), 안도라(05), 체코(06), 슬로베니아(06), 스위스(07), 우루과이(08), 에콰도르(08), 뉴 칼레도니아(09), 왈리스 푸투나(09), 헝가리(09), 오스트리아(10), 리히텐슈타인(11), 아일랜드(11), 브라질(11), 콜롬비아(11)

• 일부지역에서만 시행하는 국가

미국: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뉴저지, 네바다,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위스콘신
호주: 수도 특구, 뉴사우스웨일즈, 퀘즐랜드, 테즈메이니아, 빅토리아
멕시코: 쿠아우일라
베네수엘라: 메리다

• 비등록 동거(동성 간 사실혼)인정 국가

호주
이스라엘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그 밖에..... 대만은 2003년에 처음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만들었으나, 아직 동성결혼의 법적 허용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네팔은 윤리적, 종교적으로 동성결혼이 금지되지 않았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제도적 장치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베트남은 동성결혼 벌금형을 폐지하였다. 미국 유타 주는 동성결혼금지법 철폐 소송이 진행 중이다. 태국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 중이다.

†: 법제화하였으나 아직 시행 전

결혼한 커플 / 커밍아웃한 유명인

L



Ellen DeGeneres & Portia De Rossi
American
Actress
Married



Koyuki Higashi
Japanese
Actress
Married

G



George Takei
Japanese-American
Actor
Married



Don Lemon
African-American
Anchor
Single



Ricky Martin
Puerto Rican-Spanish
Singer
Single

Dan Choi
Korean-American
Former American infantry
officer, LGBT rights activist
Single



Anderson Cooper
American
Journalist, Television personality
Single

B

Cynthia Nixon
American
Actress
Married





Mika
British
Singer
Single



Billy Herrington
American
Actor
Married

Virginia Woolf
American
Author
Single



Amber Heard
American
Actress
Unmarried



아파트를 떠나

한 번쯤의 옥탑 자취방에서
집주인의 냉정고를 정리해주고
우리가 얻은 것은 삶과 대담

참여 레이린 보리 지구 케이 케일 홍연 꼬밍 류레
진행 보리
정리 지구 홍연

보리 : 우리 올해 주제가 법과 결혼인 만큼 간단하게 결혼이나 동거나 가족이나 아이에 대해 개인적인 미래 계획을 간단하게나마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계획을 한 번씩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 : 저는 파트너랑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아이를 입양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낳아도 되고 그냥 셋이서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외국에 가서 살 생각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애기는 키우고 싶어요.

레이린 : 전 애기는 별로 갖고 싶지 않은데, 아예 결혼도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동거하고 둘이서만 살면 좋겠어요.

케이 : 저는 아이는 마찬가지로 가질 계획이 없고요. 특히 제가 좀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음 결혼은 하고 싶고요, 둘이서 재미있게 게임 하면서.. 그냥 재미있게 영화 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홍연 :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바뀌어요. 예쁜 애 보면 키우고 싶다가도, 알잖아요, 다.

보리 : 홍연 님은 애는요?

홍연 :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동 웃음)

지구 : 저는 애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혼자 살고 싶어요.

보리 : 독신주의자?

케이 : 근데 나도 집이 아주 크거나 그런 게 아니면 서로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 파트너하고 내가 최소한 방이라도 달라야 지 좁은 방에 같이 살고 그러면 좀 힘들 것 같아, 그건 싫어.

보리 :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애가 필요해요.

케이 : 필요해요?

보리 : 그러니까, 파트너가 있고 파트너를 사랑해서 같이 아이를 키우고 싶다 같은 프로세스가 아니고 그냥 나랑 아이는 같이 가는 거고, 파트너는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케이 : 혼자 살아도 키울 계획이 있는 거야?

보리 : 음, 그렇지만 그건 일단 드림일 뿐이고 현실적인 여건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닌 거 같고... 출산을 하면 커리어가 끊

간다거나 바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미혼모가 되는 거고 그런 문제 굉장히 클 때리긴 한데, 순전히 나의 바람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코밍 : 저는 솔직히 같이 산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조금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꾸리고 파트너랑 같이 산다는 것도 사실 두렵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냥 1,2층에 사는 거야. 아니면 열집에 살거나.

홍연 : 근데 동거가 아닌 결혼 측면에서 보자면, 전 열집 윗집 말고 책임전다는 면에서는 같은 집에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리 : 책임의 의미가 들어가는구나.

-결혼식-

보리 : 그럼 혹시 본인이 원하는 결혼식이 있는지?

(일동 침묵)

보리 : 이 숙연한 분위기 뭐지. 못 할 거라는 뭐 그런 건가..

홍연 : 식당만 아니면 될 것 같은데.

케일 : 어어.

케이 : 돈 많이 들어서 예식장 차려 입고 이건 좀 아닌 거 같고.

홍연 : 예식장만 아니면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연스레 좀 부담이 줄어들 것 같고 그런 쪽이 좀 더 원하는 결혼식에 가까운 것 같아요.

케일 : 맞아 막 그런 거 있잖아. 엄마 아빠 친한 사람들까지 불러서 하는 그런 커다란 결혼식 말고.

보리 : 모르는 사람까지 인사하는 그런 거 말고.

케일 : 그래 그런 정말 아닌 거 같아. 간소하게 하는 게 좋은데. 사실 결혼식에 대해선 디테일한 걸 생각 안 해봤어. 그냥 김조광수 씨처럼 둘 다 웨딩드레스 입고 둘 다 턱시도 입고 그런 것도 좀 재미있을 것 같아.

케이 : 저는 결혼식 식 자체에 대해서 보다가 뭔가 식전에 촬영이라던가, 그런 걸 더 힘주고 싶어요. 성 같은 건물 앞에서, 경희대나 고려대 같은 건물.

(일동 웃음)

보리 : 나는 내 결혼식은 지상 최대 핫플레이스에서 집나 놀자판을 벌이는 게 나의 목표였는데.

류래 : 난 경찰을 불러야 되고.

레이린 : 진짜 핫플레이스. 다 태워 뜨겁게 하고.

보리 : 디오니소스 제전이 솔직히 이상향이긴 해. 그렇지만 진짜 사람을 잡아서 불에 태우진 않을 거라고.

코밍 : 그래서 돼지로 하자고 했잖아.

보리 : 돼지를 거기서 잡겠다는 소리는 아니야.

(일동 웃음)

보리 : 난 되게 구체적으로 결혼을 상상하기 때문에... 1부는 그래도 진지하게 할 거거든요. 1부는 진지하게 할 생각이고 2부에서 이제 미친 것처럼 놀고 싶고.

케이 : 다음날 기사 뜨고.

보리 : 결혼을 빙자해서 세계에서 제일 미친 것처럼 놀아보는 게 목표이긴 해.

류래 : 지구촌 뉴스.

(일동 웃음)

-원가족과의 관계-

보리 : 그러면 만약에 애인이 생기거나 동거를 하던 결혼을 하든 원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랑 현재 본인의 정체성이랑 원가족이랑 관계가 어떤지에 대한 그런 얘기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고.

케일 : 여기서 커밍아웃 한 사람?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라도.

보리 : 가족한테,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든, 손 한번 들어봐요. 여기서 다섯 명 손 든거지?

케일 : 난 되게 흘렸는데. 엄마한테 변날 가입 원서, 변날 자료집 같은 거 일부러 방에다 올려놓고, 우리 엄마가 내 영수증까지 다 보는데 그걸 안 봤을 리가 없잖아. 근데 아직 내놓고 말은 못 하겠어. 별로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서.

홍연 : 저는 커밍아웃은 제대로 안하고 동생 앞에서 커뮤니티 카페를 들어간 적은 있고.

지구 : 난 잘 숨기고 있어요.

레이린 : 저도 되게 잘 숨기고 있어요. 기독교 집안이라서.

(일동 탄식)

레이린 : 말하는 순간 이제 호적에서 과일 듯한 그런 분위기. 저희 엄마 아빠만 기독교인 게 아니라 아예 외가 친가 둘 다 기독교라서.

코밍 :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한테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되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그냥 응, 그래. 이라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수업시간에 동성애 얘기를 꺼내면서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진짜 너무 감동 받았어요.

케일 : 기독교인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보리 : 지금 우리가 열길로 섰는데, 만약 애인이랑 동거를 하든 결혼을 하든 그냥 '사귀던 애인이랑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원가족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상상을 해봤다면?

케일 : 난 결국엔 말할 것 같아. 엄마 아빠한테 말하고 집 나오고, 얘기는 할 거야. 그래도 납득을 시키려고는 할 텐데, 그걸 싫어한다면 뭐 할 수 없고.

보리 :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원가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이 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얘기를 해 주는 건지?

케일 : 예의지, 최소한 노력은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 노력은 해볼 수 있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 정도.

지구 : 나는 웬만하면 평생 부모님한테는 말 안 하려고.

케이 : 나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어느 정도 잘못 돌아가도 나에게 엄청난 타격이 있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서 말을 하면, 내가 하는 행동 같은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홍연 : 제일 중요한 건 경제적 독립을 한 다음에 커밍아웃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거). 원가족과의 관계가 어떨지도 중요

한 게, 부모님들 중에서도 '결혼 안 해도 돼.' 이런 부모님도 있고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애 낳아.' 그런 분도 있고.

케일 : 우리 엄마는 나보고 혼자 살라 그러는데, 결혼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성애자 남자 애한테 결혼하지 말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라고 말을 해서 항상 '나 혼자 살아야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난 여자랑 결혼을 할 거야.'랑 '혼자 살 거야.'랑 또 다르니까.

보리 : 난 '혼자 살아라.'보다는 그래도 '누군가랑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 같아.

-이혼-

코밍 : 누가 그랬어요.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할 권리를 달라고 하는 거라고. 이혼이라는 게, 사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커플들이 깨질 때 어떠한 법적으로 보장된 게 없기 때문에 그 이혼할 권리를 위해서 결혼할 권리를 찾는 거라고.

케이 : 이혼도 그렇고 상속도 그렇지 뭐.

보리 : 응. 상속은 진짜 현실적으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실혼 커플 중에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커플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진짜 재산권 때문에 장난 아닌가 보더라고요. 한쪽 명의로 해놔기 때문에 헤어지고 한쪽이 먹어버리고.

케이 : 근데 그게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원래 재산이라는 게 상속법도 복잡하고 그런 거 보면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제도가 없으면 문제가 많을 텐데, 그걸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홍연 : 아이 쪽에서도 두 사람간의 아이라는 그 법적 증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둘 중의 한 명이 죽었을 때 그 아이가 죽은 사람의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죽지 않은 사람의 아래에 있었을 때 상속을 못 받는다면, 법적으로 그런 문제도.

케이 : 그리고 상속 받을 때도 자기랑 같이 살던 사람 죽어도 원가족이 유류분¹⁾ 신청하고 그러면 아무리 유서 써도 효력이 거의 유류분 빼줘야 되고 그러니까.

보리 : 유류분이 생각보다 퍼센트가 크더라고.

-여대-

보리 : 여대에 어떻게 오지게 되었는지, 한 번씩 들어볼까요?

케일 : 나는 원래는 공학에 가고 싶었지. 왜냐면 공대니까 남자애들이 더 많아서 분위기가 여자만 있는 거랑 남자까지 있는 거랑 다르니까.

홍연 : 어, 전 반대. 저도 공대지만 왔을 때 공학에서는 남자애들 밀어주느라 여자애들 약간 깔본다고 들어서 차라리 다 같이 여자인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케일 : 그런 얘기도 들었어. 근데 어차피 그렇게 될 거면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도 있고 그냥 남자애들 많으면 뭔가 남자친구 만들기도 편할 것 같아서 일코²⁾하기도 그래서 원래 그랬는데 어 붙었네? 어 집에서 가깝네? 그리고 여자밖에 없어. 어 됐든 좋... 좋다.

(일동 웃음)

홍연 : 근대 일코하기도 여대가 공학보다 편한 것 같아서. 공학에서는 아무래도 남자와 썸 타는 애들도 있고 썸이 아닌데도 연여가지고 불편하게 되기도 하고, 너는 여대라서 남자애들이랑 안 어울리는구나. 이렇게 썸계 댈 게 있으니까.

케일 : 미팅 같은 거 안 해. 이러면서

레이린 : 귀찮아. 돈 낭비. 이러면서

보리 : 전 진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남녀공학 남녀합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자들만 있는 공간이 별로 상상이 안됐어요. 이대 불고 나서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친척 언니 중에 숙대 다니던 언니가 있는데 자기는 여중 여고 반 다 나왔는데도 여대에 적응을 못하겠대요. 자긴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다고. 뭐가 그렇게 불편한지는 난 아직 잘 모르겠어. 근대 굳이 반수를 해가지고 학교를 옮겼거든요. 근대 그래서 나보고도 경고하면서 자기는 여학교만 다녔는데도 안 맞아서 이런데 난 여학교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할 거냐. 난 그냥 신나 있었고, 여대 와가지고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 편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지구 : 난 그냥 점수 맞춰서 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대라서 더 어떨다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케일 : 맞아. 확실히 근대 내가 바이킨 한데 솔직히 여자가 더 좋긴 하지만 어쨌든 바이라서 그럴 수 있는데 약간 남자가 있을 때 생동감이랑 좀 다른 것 같아. 여대는, 난 좋다? 난 여기서도 막 신난다? 근대 내 친구는 안 신나있어. 자기는 끝나고 미팅 가는 거야. 그런 건 좀 섭섭하다고 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같아. 생각해 보면.

보리 : 나는 내가 얼마나 L인지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깨달은 게.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아무튼 이 학교를 입학하기 전까지는 항상 남자가 있는 곳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회구성원 중 몇십 퍼센트인 남자가 통제로 빠졌는데도 위화감이 없는 거야. 내가 신경 쓰지 않았던 퍼센트.

케일 : 근대 이게 우리같이 L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좀 그런 게 내 친구가 숙대를 다니는데 무슨 글을 올렸나면 여대가 너무 싫다고 여대에 있으면 여자밖에 없어서 재미도 없고 자기관리가 안 된다는 거야. 생동감도 없고, 동뿔길에, 그리고 자기관리가 안 된대. 그냥 안 씻고 가도 괜찮고 꾸밈 필요도 없고.

(일동 웃음)

-진로계획-

보리 : 그러면 이제 본인의 진로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들어볼까요?

케일 : 제가 공대니까 IT 기업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른 쪽 업계 중에 개방적인 곳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많고 그런 데 가서 일을 하면 좀 편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고 회사 이런 데 되게 힘들긴 한데 특이한 사람 많고 개방적인 사람도 많다고 들어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제가 성 소수자라는 걸로 불이익이 별로 없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레이린 : 제가 갖고 싶은 직업은 개방적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보수적인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곳? 저는 회계 쪽으로 가고 싶어서, 켄지 그 쪽은 약간 딱 막힌 사람

이 있을 것 같은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저는 대기업 쪽에 좀 있다가 적당히 높은 직급 가서는 중소기업 가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돈 많이 버는 게 제일 목표. 회계사도 돈을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거고, 일단 수학을 하니까, 수학을 좋아해서.

(일동 감탄)

지구 : 나는 약대 가서 제약회사 다니다가 늙으면 약국 차리고 싶어요.

모병 : 같이 차릴래요? 저 약산대? 같이 동업해요, 우리, 레즈비언 약국.

(일동 웃음)

홍연 : 저는 공대 일대, 일단 일과 사생활을 분리 할 수 있는 IT 쪽으로 직장을 가지고 살고, 그런 쪽으로 가고 싶은 이유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의 회식 문화 내지는 한국인의 오지랖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너 근대 결혼 안 해? 선 좋은 자리 있는데 안 갈래?' 이런 말 듣는 자체가 너무 싫어서 차라리 일이 힘들면 사람들끼리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서로 피곤하니까 그냥 그런 말을 안 하고, 일단 그런 말이 나오면 제 반응이 다른 사람처럼 다를 거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하고 관계도 불편해 질 테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일과 사생활을 분리 할 수 있는 직장을 찾고 싶어요.

보리 : 전 어떤 계열로 가야겠다. 이걸 솔직히 없어요. 아마 한국 안에 있는 모든 기업에 이력서를 넣지 않을까 싶은데. 근대, 사생활이랑 일이 완전 분리되는 데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인턴을 했고, 굉장히 바쁜 곳이었고, 다들 그 바쁜 안에서 친해진거나 아니면 '내가 너를 친근하게 생각한다.'라는 표현은 아무래도 사생활을 물어보는 걸로 흐르기 마련이고, 그러니까 '누구 씨는 애인 있어?' 애인 있어가 아니지. '남친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여대인데 소개팅 별로 안 해? 이렇게 물어보거나 '소개팅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되니까, 그럼 이제 나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케일 : 근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성의의 표현이잖아.

보리 : 그 사람 입장에서는 성의의 표현이고, 내가 이렇게 사생활까지 얘기할 정도로 너랑 친해지고 싶고 너를 편하게 생각한다는 표현이고, 내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너는 나의

성의를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내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나랑 거리를 두고 싶은 건가?' 이렇게 생각 되고 불편해지죠. 근대 내가 인턴을 하면서 느꼈던 건 생각보다 내 안에서 나의 레즈비언 정체성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는 거였어요. 다른 취향이랑 똑같이 생각하려고 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별로 안 친한 사람한테 내가 무슨 색을 좋아하고, 무슨 별자리이고, 무슨 음식은 좋고,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 다 하지 않듯이 그런 사소한 취향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차지하는 부분이 크더라고.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부분을 질지 않고, 다른 부분을 다 사실적으로 말했을 때, 말이 헛도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성애자의 문화와 성 소수자 문화가 다르게 흘러온 부분이 많은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럽고 말하지 않으면 답답한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

홍연 : 개인적으로는 제가 L이든 B든, 설명을 안 했을 때, 상대방이 날 이해 못하는 것 중에 최고봉은 CC였을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애인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른바 '애인 있어요' 노래도 아니고 애인은 있는데, 보여주기 싫다고 해도 보통 학교는 어디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어디 다녀, 뭐해, 무슨 과야.

보리 : '사진 보여줘.' 학교는 땡을 친다 하더라도, '사진 보여줘' 어떡하지?

케일 : 정말 게이친구를 사귀겠다고 결심하게 됐어.

보리 : 이게 진짜 뭐 숨기려고 걱정해서 아니고, 내가 굳이 안 알고 싶을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커밍아웃을 할 거고, 굳이 너한테까지는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 그걸 '솔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케일 : 이번에 저 같은 경우에는 동창들끼리 엠티를 갔어요. 근대 갔더니, 그냥 너 '애인'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너 '남친'까지는 그냥 그리려니 했는데, 그냥 진짜 다 '너희 오빠 잘 있어?'. '너희 오빠는 어때?' 이렇게 그냥 '오빠'로 명칭이 '연상의 남자'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런지 너무 비위가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술 마시다가 들어가서 잤어요. 혼자서.

보리 : 나도 원래 엄마가 그냥 눈치를 쏘는 거거든요. 근대 엄마랑 얘기를 하고 나서,

엄마가 아파한테 아웃팅을 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내가 갑자기 머리를 숙였을 치고 집에 갔더니, 왜 갑자기 머리를 잘랐냐고 그래서 잘 되던 사람이 좀 안돼서 속상해서 잘라줬다 라고 얘기를 하니 까 아빠가 '어떤 놈이 너를 잘랐냐?', '어떤 오빠가 너를 잘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빠' 일거라고 생각하는.

케이 : 그것도 있고, 동창이라던가, 솔직히 그다지 관심사를 공유하는 집단이 아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얘기가 솔직히 드라마, 아이돌, 아니면 그냥 연애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캐주얼하게 던질 수 있는 게, '그래서 너희 오빠 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스물도 크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드니까 전 차라리 전공 공부 얘기를 했으면 했지 솔직히 너무 힘들잖아요.

보리 : 저 쪽은 친해지자고 나한테 그런 말을 꺼내는 건데, 난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어떻게 빠져나갈까 머리를 굴려야 하는 그 상황이 너무 짜증나는 거지. 난 전혀 편하지 않단 말이지.

케이 : 먼저 마시고 죽으면 돼요.
보리 : 술자리가 아니면? 사내식당 이런 거.

케이 : 취한 척 해.
(일동 웃음)

케이 : 난 그래서 하도 얘기가 나오게 돼 있으니까, 내가 먼저 실드를 쳐,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당연히 다 납자일거라고 지레짐작을 하잖아. 그럴 오히려 물어보면 적당히 받아 치고 그러면 차라리 그게 편할 때도 있더라.

보리 : 일코가 어려워. 난 이번에 인턴 나가서 처음으로 진짜 진심으로 일코를 해봤단 말이야. 예전에는 그냥 알아도 상관없고, 알면 오히려 내가 편하고 내가 불편한 사람은 나를 피하겠고, 그렇든 안 그렇든 그냥 내가 편한 사람들만 주위에 남아 있겠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어쨌든 몇 달 짜리 인턴이지만 직장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인턴 마지막 날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데 상사 분께서 '너는 상사들한테 너무 애교가 없다.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만들어서 남자친구도 윗사람이고,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애교 떠는 걸 연습하면 윗사람에 대한 애교도 다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막 이라고 디게 그랬는데

암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케이 : 여자상사가.

지구 : 남자친구가 왜 윗사람이에요?

보리 : 그니까, 오빠니까 윗사람이래. 당연히 오빠를 사귀고, 오빠는 윗사람이니까, 남자친구는 다 윗사람이고, 그러니까 너는 윗사람한테 애교 떠는 법을 남자친구를 대하면서 연습하고, 막 그러는 거야. 나는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빠서 '남자친구 있네요?' 그러니까, '너같이 애교 없는 애 좋다 그러지?' 이러면서 '뭐가 좋대?' 이러면서.

모밍 : 좋은데.

(일동 웃음)

-김조광수 결혼식에 대해-

홍연 : 아까 진로 계획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커밍아웃을 하고 쉬운 직종이 있고 아닌 직종이 있잖아요. 물론 커밍아웃을 해야지 좀 직장생활이나 연애생활이 편하다는 건데 하예? 예를 들어서, 김조광수 감독 결혼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랑 영화배급사 측이라는 그런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좀 더 커밍아웃이 쉽고 공개결혼식이 더 쉽지 않을까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직종을 가진 사람끼리 결혼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결혼식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모밍 : 친구랑 얘기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계급이 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3포세대³⁰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혼을 포기한 세대에 있고, 똑같이 우리 레즈비언이랑 게이 안에 서도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공개했을 때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사람은 결혼을 못 하고, 직장을 잃을 위험이 없는 사람은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결혼이라는 의미에는 그런 의미 말고도 사실 성 소수자의 사랑이 인정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홍연 : 제가 들었던 건 커밍아웃이 재산 모아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차이를 따지자면 게이커플, 이성애커플, 그리고 레즈비언커플, 아무래도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게 여자가 좀 더 많아서 경제적인 면에서 결혼을 할 수 있다 없다는 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모밍 : 경제적으로도 사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당장에 자기는 사실 결혼할 상황이 안 되더라도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결혼을 선택할 권리조차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기는 정말 상황이 안 되더라도 사실 나는 결혼하고 싶다, 지금 살고 있는 파트너랑 결혼해서 살고 싶다는 사람 많은데, 그런 권리조차 인정받지 않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그런 맥락에서, 사실 이 결혼은 동성결혼이라는 의미, 그리고 김조광수, 김승환이라는 결혼식의 의미가 좀 큰 거죠.

보리 : 근데 그런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공개적으로 안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해줬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를 해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고맙고.

-교정강간-

케이 : 약간 아쉬운 건, 확실히 게이랑 레즈비언의 위상이 다르다는 거? 아무래도 그 분들은 남자 들이고, 그럼 경제적으로도 아까 얘기했듯이 우위에 있고, 막말로 교정강간 이런 얘기 있는데, 남자는 그걸 당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잖아. 그런 면에서는 좀 부러운 것 같아.

보리 : 군대에서는 좀 얘기가 다르지.

케이 : 군대는 좀 다르지. 그건 인정하는데, 여자보다 훨씬 강하잖아 어쨌든 남자가.

보리 : 그러니까 왜 인간의 수컷과 암컷은 다르게 진화하기를 선택했을까요? 막 이런 거. 나는 교정강간³¹을 그렇게 고려를 해본 적이 없다? 근데 몇 년 전에 내가 커밍아웃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보고 내가 그렇게 여기저기 커밍아웃을 하고 다니면 스스로도 위험하고 스스로도 조심해야 하는 게 많아지지만, 만약에 파트너가 있다면 그 사람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냐, 교정강간 이런 것도 사회에 분명히 있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 했을 때, 난 되게 충격적이었거든. 난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거든. 나는 커밍아웃을 했을 때, 딱히 별 일이 없었기 때문에, 교정강간 얘기를 들었을 땐

솔직히 충격적이었지. 알긴 알았어요. 알긴 알았는데, 아는 거랑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듣는 거랑 다르니까.

홍연 :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되게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여대고, 레즈비언 프렌들리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운동을 많이 해서, 운동을 하다 보면 혼성으로 하는 경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느끼는 게, 내가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많이 해도 남자는 못 이긴다? 그런 게 어떤 때는 확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서 같은 맥락으로 아무리 내가 준비를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만, 제 자신이 좀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보리 : 난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 강간은 내가 이성애자 여성으로 오인받아서 해태로 남성한테 강간을 당하는데 내가 레즈비언으로 인식을 당해서 레즈비언인데 너를 교정하기 위해서 라는 의미로 강간을 당하는 강간은 강간이고 그건 내 책임이 아니고 하는 자식이 미친 자식이고 하는 자식이 잘못 한 건데 그게 왜 내 책임이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케이 : 책임이 아니라 일단 안 당하는 게 중요하잖아.

보리 : 안 당하는 게 중요한데,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슬릿워크³²를 하잖아요. '내가 야하게 입어서 강간당하는 게 아니다.'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집회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내가 야하게 입었지만 야하게 입은 게 덮쳐달라는 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은 야하게 입고) 시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후줄근한 츄리닝에 삼선 슬리퍼를 신고 나와서 '이게 내가 강간당했을 때 입었던 옷차림이다.' 하고 피켓을 들고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차림이나, 뭐 내가 레즈비언이거나, 내가 해태로거나, 뭐 그딴 거 필요 없이 강간이라는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가해자고, 그 사람이 범죄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홍연 : 그러니까 일단 분명히 그쪽의 잘못이 맞는 건데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주변이든 어디든 많이 알려야 된다고. 교정강간이라는 게 있고, 이게 정말 잘못된 거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많이 알려야 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보리 : 근데 생각보다 외국 사회보다는 한국 사회 안에서 교정강간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되게 적어요. 해태로 남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레즈비언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 레즈비언이 표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안 보이는 느낌? 강간당한 여성 속에서도 레즈비언은 안 보이는 그런 존재라는 느낌?

홍연 : 말을 못 하잖아.

케일 : 진짜로 그런 일을 건너들은 적이 있어. 정말 강간을 당한 적이 있어서 무서워서 남자를 못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얘기 뉴스에 아무데도 없잖아. 뉴스에는 그냥 수지가 이번에 열애설 났다고 그러지. 뉴스엔 그딴 거 밖에 안 나온다고.

-손글씨 자보-

보리 : 아 근데 우리 손글씨 포스터 썼었잖아요. (여기서 쓴 사람 나랑 케일 밖에 없지) 그거 비원에서 불편하다는 말이 나왔었어.

케일 : 굳이 듣고 싶지 않은데 그걸 왜 얘기하지? 이런.

보리 : 그니까 예를 들어서 이성애자들이 '소지집 잘생겼다.' 이런 거 포스터에 굳이 쓰지 않는데, 우린 '나도 설리 좋아해' 이런 걸 썼단다. 그런 거 굳이 알고 싶지 않은데? 이런 느낌?

케일 : 솔직히 알고 싶은 내용 쓰는 게 어디 있어.

보리 : 정체성 같이 중대한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건들건들 거리듯이 그렇게 쓴 게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레이린 : 난 좋았는데. 되게 새롭다고 해야 되나? 색다르고 신박하고.

모밍 : 근데 정말 자기가 공감 가는 얘기잖아.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이고.

레이린 : '남자친구 얘기 맞장구치는 거 지겹지 않니?' (일동 맞아 맞아)

보리 : 되게 사소한데, 예전에는 그 포스터 까만색 분홍색 그거 붙었잖아. 팡 큰

데, 붙여도 눈에 안 띄었거든요? 그 때, 색지 그냥 아무 색깔이나 펴 놓고, 내용도 진짜 완전 간단하고 그런데 딱 보면 내 얘기 같죠. 그리고 쓰면서 되게 즐거웠거든요. 굉장히 재미있었어.

케일 : 진짜 하고 싶은 말 한 거니까.

보리 : 하고 싶은 드림 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쓴 거니까 내가 평소에 쓰는 말로 그냥 그렇게 대놓고 이제 신입 모집 포스터를 쓸 수 있다는 게 되게 재미있었고, 내가 약간 걱정했던 건 인권운동모임이라면서 CC 드림을 썼다는 게 살짝 좀 그런가? 너무 이 내용으로 많이 붙이면 좀 그런가? 하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CC가 있고, 그걸 부정하긴 그렇고, 실제 CC인 사람이 그걸 썼으니까. 그래서 제지하진 않았는데, 인권운동모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약간 불편할 수 있겠다고 생각은 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지적을 안 하고, '굳이 알고 싶지 않은데 굳이 들이대면서 친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되게 섭섭했어.

홍연 : 그런 거 있잖아요. 포스터에서 괜히 남자 연예인 사진 붙여 놓고, 말풍선 해가지고 광고하는 거. 난 저 남자 연예인이 말하는 거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그냥 저 사람이 말 한다고 딱히 끌리지 않는데.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들도 어쨌든 내가 그 광고를 안 볼 권리를 무시하고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밍 : 어쨌든, 자기가 광고하고 싶고, 광고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광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실 서로 이해하면서 넘어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너희 왜 그런 얘기를 왜 쓰냐. 난 너무 불편하다. 난 듣고 싶지 않은 얘기다.'

보리 : 정체성 같은 숭고하고 진지한 문제를 장난치듯 건들건들 '나도 설리 좋아해' 이러니까 그게 불편했다 라던가.. 근데 정체성이 그렇게 진지할 필요는 없다고. 내 정체성은 내 일상이고 나한테는 내 일상인데 겁나 진지하게 '성 소수자의 정체성은 존중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홍연 : 까놓고 말해서 무슨 팬픽이반처럼 내가 성 소수자인 게 무슨 천형을 타고난 것처럼 땅 파고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니까 그런 거 보면 완전 오글거리는데 아무튼.

보리 :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일상인데.

모밍 : 근데 그게 다른 동아리였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됐을 그런 얘기인데.

보리 : 그냥 드림치고 이러면 아 예네 웃긴다. 이라고 말 건데, 근데 진짜 비원에서 '내가 진짜 대학을 n년 다니면서 변날의 포스터들을 봐 왔는데 이런 포스터는 처음이다. 기독교 단체가 변날을 음해하려고 사칭한 거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그런 거 아니야 벼들... 약간 이미지 변신을 해 보려고 했어.

모밍 : 이미 사실 변날이라는 이미지가 어떤 숭고한 이미지? 인권운동을 하는 정말 운동단체라는 이미지가 너무 굳혀졌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들어오기에는 너무 먼 존재가 돼버렸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포스터 자체도 좀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레즈비언이고 이성애자고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는 건데 그런 공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냥 인권으로서만, 정말 그 사람들이 숭고하게 생각하는 일상과 떨어진? 근데 사실 인권이라는 건 굉장히 일상이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거죠.

보리 : 우리의 정체성이 100% 활동가가 아니란가? 연애하고 싶고, 설리 좋아하고, 연예인 좋아하고, 예쁜 여자 보면 좋고, 그냥 그렇다니까.

케일 : 다 내 얘기 같아.

(일동 호호호)

보리 : 약간 고민하기도 했어. 왜냐면 다 같은 자리에서 쓰기는 하지만 각자의 생각이나 각자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손자보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개인 활동가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인데, 그 밑에 '이화변날'이라는 이름을 달아도 괜찮은가? 이 정도 고민. 아무튼 그 자보사건 너무 재미있었어. 재미있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근데 되게 웃겼던 건 사실 우리 1학기보다 2학기에 진짜 신입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손글씨 포스터 보고 신입이 완전 몰아쳤어. 그러니까 거기에 공감을 얻은 분들이 많다는 거고 좋았다고 느꼈던 분들이 많았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음 학기에도 할 의향이 있고. 홍연 : 운동이라는 데 처음부터 진짜 관

심을 한 번에 화 가지는 사람은 몇 없잖아요. 그런 환경을 많이 접하고, 아 이런 문제가 내가 모르는 게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서야 내가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 뭘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지 학교에 들어오자마자 '어, 변날이 있네' '레즈비언 단체가 있네' '내가 운동을 해야지' 이라고 딱 들어오긴 정말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LGBT 컨퍼런스 갔을 때, 트랜스젠더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컨퍼런스 듣고 나니까 진짜 몰랐는데 정말 너무 잔인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너무 나쁘다 생각을 해가지고 바꾸기 위해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됐지 그 전에는 별로 생각 없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많이 들어와서 운동도 생각 없더라도 많이 들어와서 적어도 어떤 건지는 접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사람들이 좀 동감을 할지 생각하고 그 정도도 좋다고 생각해요.

보리 : 우리가 손글씨 자보를 생각했던 건, 우리가 인권이라는 이름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이화인 대중 중에서도 분명 성 소수자가 있는데, 성 소수자 중에서도 변날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인권이라는 이름 때문에 너무 멀게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별 다르지 않고 날방에 모여서 서로 드림치고 놀고 막 나 누구 좋아 누구 예쁘지 않냐 누구 신곡 좋지 않냐 이런 얘기 하고 가끔씩은 진지하게 회의할 때도 있고 진지하게 글 쓸 때도 있고,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더 가깝게 느끼고 더 친근하게 느끼고 '나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오는 신입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흥했어요. 이번에 신입이 아주 많이 흥했어요. (짝짝) 2학기 신입 모집 역사 중에서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흥한 것 같아. 2학기에 진짜 잘 안 들어오거든요.

케일 : 우리가 어떤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솔직한 모습을 드러낸 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

보리 : 우리가 계속 인권이라는 그 뭔가 솔직히 말해서 약간은 추상적인 가치잖아. 근데 거기에만 진짜 100% 매진해가지고 그거만 보고 막 이렇게 직진으로 달린다. 뭐 이런 느낌 아니고 우리도 사람이고.

레이린 : 전 개인적으로 분홍색 검정색 있는 포스터는 괜히 인권운동에 대해서

약간 딱딱한 분위기라서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러웠는데, 이번 포스터 보고 이제 되게 편함은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동기 메일도 쓰고, 보리 : 특정 어떤 포스터가 마음에 들었어?

레이린 : 저는 그.. ECC(Ewha Campus Couple) 그거랑 일단 다 좋았던 것 같은데, ECC 그게 제일 좋고, '나도 설리 좋아해'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게 좋았던 게, 일상적인 언어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은 근 많으니까, 그걸 좀 타파해주는 그런 거? '내 주변에 얼마든지 레즈비언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거를 나타내주는 것 같아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보리 : 나 사실 너 친구임. ㅋ 이런 거. 꼬밍 : 설리가 예쁘다고 말한 너의 친구가 레즈비언이었어!

보리 : 일단 신입이 많이 와서 기쁘요. 그래서 대답도 다시 하게 되고... 내가 신입이 너무 많이 와서 대답을 다시 하게 되니까 너무 기뻐서 이렇게 열심히 요리를 한 거잖아? 그럼 내년 1학기에요 열심히 손자보를 쓰고 아 그리고 그거 크레파스로 쓴 거 아니에요. 빗돌 보면 크레파스로 썼다고 오해하는데 포스터칼라 물감으로 붓으로 쓴 거예요. 붓 사려고 했는데 알파에 갔는데 붓이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그냥 제 개인 붓으로 썼어요. 재미있었고, 우리 집에서 썼고, 여기서 썼어요. 그러니까, 올해 신입 모집은 아주 성공적이었어. 내가 진짜 마루랑 내기 했는데, 마루가 이번 학기에 한 두 명인가 두 세 명인가 거기다 걸고 내가 대여섯 명은 온다. 예 걸었거든. 근데 내가 이겼어. 그래서 마루가 나한테 아이스크림 사줘야 돼. 풀바셋에서 목장 아이스크림 사주기로 했는데, 아무튼.

-마지막, 변날에 바라는 점, 이화인 대중에게 바라는 점-

케일 : 그냥 세상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나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재미없잖아.

레이린 : 그냥 내가 L이야 라고 말해도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 갈 수 있는 그런 세상? '아, 그래?' 라던가 그런 거 말고 '그렇구나~' 이런 그런 반응.

케일 : 애들이랑 L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아 난 좀 별로'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 줄어들었으면 좋겠어.

홍연 : 오히려 난 반대로 좀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심으면 차라리 싫다고 말하고 좋으면 좋다고 말 할 수 있는? 차라리 좀 자기 막 너그러운 척, 관대한 척 그러면서 숨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전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할 것 같아요.

케일 :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대신에 좀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보리 : 나는 그냥 내가 원래 약간 티가 나는 사람이고 내가 불편할 것 같았으면 애초부터 나랑 친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때문에 내가 커밍아웃했을 때도 '원래 알았어' 이렇게 그냥 통명스럽게 넘기거나 그냥 '너 원래 티났어. 새삼 그렇게 그러지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홍연 : LGBT 상담 컨퍼런스 갔을 때 들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는 관점에서 성별이라는 요소 내지는 성 취향이라는 요소가 엄청난 영향을 끼쳐서 '그게 안 맞으면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커밍아웃을 했을 때 관계를 끊는 사람들이 있는 거겠지? 근데 커밍아웃이나 아웃팅을 들었을 때, 적어도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었을 때 이 사람이 이성애자여서 관계를 맺었나? 라는 생각을 한 번만이라도 해보면 솔직히 관계를 막 끊자 이런 말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이라도 한번 했으면,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었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이런 거.

보리 : 솔직히 관계라는 게 물 흐르듯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굳이 막 애가 진짜 좋아서, 진짜 이성애자들 뒤편 간에 상관없이 그냥 진짜 좋아서 그렇기 보다는 그냥 애랑 있으면 편하고, 밥 먹으면 편하고, 애랑 시간 잘 맞고, 애랑 그냥 그다지 불편한 게 없고, 편해서 그렇게 같이 밥 먹고 같이 시간 보내고 그랬는데 '내가 레즈비언이다.' 라고 말하면 그 편했던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죠.

홍연 : 성 취향이라는 요소가 그 관계에 변화를 얼마나 주는지 내지는 이게 얼마나 절대적인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한 번쯤 해보다 보면 이게 그 관점에서 어그러진다고 생각을 하면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어그러지지 않는데도 그렇게 생각해서 관두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적어도 그런 거라도 없었으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케일 : 레즈비언이라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 같아. 그냥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고, 해치지 않아 정말. 아무나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한테 커밍아웃을 했다고 해서 애를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 심지어 그걸 헛갈려 하는 사람도 있고, 편견을 갖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

보리 : 여자라고 다 눈 뒤집히는 거 아니고.

케일 : 내 말이.

홍연 : 그러면 자기들은 이성애자 남자는 여자 보면 눈 뒤집히고, 이성애자 여자는 남자 보면 눈 뒤집혀? 그거 아니잖아요.

레이린 : 그러니까요. 다 자기 취향이 있는데 (일동 '나도 눈이 있다.')

보리 : 그러니까 이번 대답의 연딩은 뭐야?

케일 : 보리의 해지감자는 맛있다.

홍연 : 우리를 좀 더 편하게 대했으면 좋겠다? 그 손자보도 솔직히 그거에서 나온 파생된 얘기고, 우리 좀 더 알고 말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이니까 좀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다 거기서 나온 얘기.

꼬밍 : 그냥 일상적인 존재가 되길 원해요 저는. 그냥 사람들이 너무 터부시하는 것도 싫고, 호모포비아를 드러내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엾구나 하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싫고

레이린 :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것도 싫고

보리 : 외계에서 오거나 미래에서 오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옆에 사는 건데.

홍연 : 변날에 들어와서 굉장히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레즈비언일 수 있다.' 이런 거? 이런 캠페인 되게 많이 해 보고 싶었어요. 그게 제일 절실했거든요. 사람들이 일단 커밍아웃을 했을 때 제일 많이 듣는 반응이 자기 주변에도 있을 줄 몰랐다 이런 얘기가 제일 많으니까.

보리 : 난 진짜 불편했던 반응이 '너까지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 한 거?

(일동 헐)

레이린 : 그게 필요하죠. 저는 바로 옆에서 욕하는 걸 들었으니까. 그때 저희 반에 어떤 여자가 다른 되게 친한 여자에게랑 들어서 사귀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판결이 난 이후에, 여자애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나는 사귀는 거 편찮은 거 같애~' 이렇게 처음에는 좋은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더러워서 그렇지.' 이러면서 얘기를 끝내는 거예요.

(일동 탄식)

보리 : 그걸 받아들이는 게 '내가 관대해서, 내가 오픈리해서.'

홍연 : 자기가 엄청 막 쿨한 척?

보리 : 어 쿨한 척!

레이린 : '난 편찮아. 그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개네가 문제인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홍연 : 그런데 저희 성 취향이 그 사람들을한테 뭔가 관용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보리 : 관용의 자세 너무 싫어.

홍연 : 내가 초록색을 좋아하는데, 초록색을 좋아한다는 거에 대해서 허가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기분.

(일동 공감)

꼬밍 : 저는 내가 항상 이런 활동을 하거나 커밍아웃을 할 때, 너무나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내가 레즈비언이기 위해서, 이성애자들은 별로 말이 필요 없는데, 난 내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는지 그런 말들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잠깐만 바꿔 생각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관용의 대상이 되어버리니까, 굉장히 많은 설명들이 필요한 거야.

보리 : 내가 조별로 토론을 쏘 하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무슨 주제를 말하든 게이를 진짜 걸고 넘어져. '게이들은 이해해 줘야 한다니까? 난 이런 거에 진짜 오픈리 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

는데 나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시점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내가 게이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막 무슨 혼란처럼 '아런 거 우리가 이해해 줘야 돼.' '나는 이만큼 오픈리하고 이만큼 즐기고 이만큼 시대에 앞서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말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나는 되게 불편한 거야. '이해해 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좀 그랬어.

홍연 :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진짜, 내가 허락 받아야 되나.

보리 : 응, 어찌라는 거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나는 웬만하면 진짜 팀들에서도 커밍아웃하고 그런 게 되게 흔하긴 한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오히려 불편한 거야. 그게 뭔지 난 아직도 모르겠어.

홍연 : 오히려 그런 식으로 더 말하는 사람은 더 포비아인 경우가 많아서.

보리 : 응, 그게 진짜 너무 겁나는 거야. 진짜 내가 '어, 난 레즈비언이야. 그러니까 내가 널 편들어 주시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겁나는 거야.

홍연 : 포비아이더라도 자기 혼자만 '아, 난 싫은데.' 이라고 마는 사람도 있고, 악질적으로 퍼뜨리고 아웃팅시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통은 그런 줄한 척 하는 사람이 후자인 경우가 많아서 전 그런 사람들 보면 좀 그래요. 더 조심스럽고.

보리 : 진짜 우아한 거야. 우아하기 짝이 없어.

케일 : 그래서 결론.

모밍 : 좀 더 일상적으로 파고들었으면 좋겠다?

보리 : 나는 진짜 무슨 운동단체라고 정말 콧대 세우고 이런 거 진짜 별로인 거 같아. 최대한 이화여대 일반 대중을 대변하려고 애썼으면 좋겠고, 거기에 다가갔으면 좋겠고, 일상적인 감정에 가까이 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변남이라고, 이화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이라고 막 콧대 세우거나 '우리는 이런 건 지켜야 돼.'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 우리는 굉장히 소수 모임이고, 사람에 따라서 바뀌고 그게 매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면 그게 오히려 나는 사람이 적어서 생긴 좋은 점인 것 같고, 네 명밖에 없어서 손자보라는 사고를 칠 수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좋

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변남은 개개인의 의견이 다 존중되는 아주 소수이고, 좋고, 자유로운 단위니까 여러분이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 편집자 후기(지구)

신입면접을 보고 바로 그 주 토요일에 대담에 참석했습니다. 대담은 보리의 집에서 진행되었고 우리는 보리의 요리를 안 주로 취중대담을 시작했습니다. 대담주제가 '법과 결혼'인 만큼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긍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계획에 대한 꿈이 있고 그 꿈을 위해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진지하거나 딱딱하지만은 않은, 그렇다고 너무 장난스럽지도 않은, 그게 제가 변남의 첫 모임에서 느꼈던 점입니다. '법과 결혼'에 있어서 아직 우리가 절어가야 할 길이 너무 길지만 앞으로도 밝고 활기차게 우리 미래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주석

- 1) 유류분 (遺留分) : <법률>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
- 2) 일코 : '일반인 코스프레'의 줄임말로, 여기서는 이성애자인 척을 한다는 의미
- 3) 3포 세대 : 결혼, 출산, 취업을 포기한 세대
- 4) 교정 강간(Corrective rape) : 사회적 성범죄의 일종으로, 동성애를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여 이를 바로잡는다(교정)란 명목으로 자행되는 성폭력을 말 한다.
- 5) 슬릿워크 : 아하계(창녀slut처럼) 입고 거리를 행진하는 시위 행위. 여성의 옷차림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남성 위주 시각에 대한 저항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아직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

굳이 이 문화제의 끝을 잡고

보리

OO은 미래에 어떤 가족상을 원해? 파트너가 생긴다면 같이 살 거야? 아님 결혼하고 싶어? 미래 계획에 아이가 있어? 참, 공개적으로 결혼식 할 생각도 있는 거야?

이번 문화제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위와 같은 질문들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서로가 꿈꾸는 미래의 가족에 대하여 여러 번 얘기하면서 미래상은 점점 더 버전 업 되어 흥미진진하기 이를 데 없었다고나 할까요. 딱히 모두가 결혼하고 싶은 것도, 아이를 가지고 싶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도 했지만, 누가 결혼하고 싶은지, 또 아이를 가지고 싶은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전 결혼도, 아이도 꿈꾸는 사람으로서, '나는 아직도 사회적으로 권장하는, 소위 정상 가족이라는 예쁜 그림에 대한 메르헨적인 꿈을 아직도 가슴속에 품고 있나' 생각하면서 헛헛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퀴어애즈포크'라는 드라마를 아시나요? 전 거기서 브라이언이라는 캐릭터를 정말 좋아했어요. 브라이언은 클럽을 사랑하고, 연애편계에 구애받지 않으며(소위 문란한 생활을 하며), 본인의 자아와 자유를 최고로 중요시하는 캐릭터입니다. 반면 브라이언의 절친한 친구인 마이클은 동성 파트너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져 교외 주택에 살 계획을 하고 그걸 착착 실행시켜 나가죠. 마이클이 정말 행복해보였기 때문에, 브라이언이 마이클에게 빈정거릴 때는 저도 역시 공감하긴 했더랬습니다. 역시 브라이언이 느꼈던 감정은 질투, 애틋을까요?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풀어나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남았던 것은, 브라이언이 '넌 이성애자 짝퉁으로 살고 싶어하잖아! 우린 퀴어야! 그렇지 않을 권리가 있어! 넌 그 주택에서 알콩달콩 살든지! 난 자유롭게 살 거야!' 하고 생때 같은 화를 냈을 때, 생각이 많아졌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퀴어라고 가정을 꾸리지 않는 것이 권장될 건 없죠. 하지만 내가 퀴어고, '균열을 내는 존재'라면, 조금은 더 욕심을 내서 기존 가족제도보다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생때를 부리고 있던) 브라이언은 정말로 멋졌죠.

'스스로의 정체성을 슬퍼하는', '결혼하고 싶은', '안정감을 갈망하는' 게이의 이미지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문란한' 게이의 이미지는 어떤 아이콘 같았어요. 사회적으로 동성애에 대해 문란하다는 이미지가 있고, 그걸 이용해 도발적인 기사가 나오기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하고, 이성애자가 다 똑같은지는 않듯이 우리도 다 똑같은지는 않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응,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 난 문란해. 난 핫하지.'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해 주었고, 전 그게 참 시원했어요. 그 캐릭터 덕분에 퀴어애즈포크는 '가정적이라 행복한' 게이와 '문란해서 행복한' 게이를 다 보여준 멋진 드라마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가정적인 소망'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결혼을 바라는 소위 가정적인 동성애자 상만이 사회적으로 주목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라도 별로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공고한 가

족상을, 동성애자도 역시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 기존 가족 틀을 더욱 튼튼하게 해주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껏 기존의 '정상 가족'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해 왔습니다. '정상 가족'이 아닌 가족을 꿈꿀 권리, 그리고 그 가족과 행복하게 살 권리, 굳이 여러 명과 함께 살지 않더라도 혼자라도 멋지게 살 권리.

제 소망은 끊임없이 유동하고 교차합니다. 어째서인지(?) 자유와 결혼을 대척점에 놓고 평행선 위를 이리저리 걸어봅니다. 오직 감정만으로, 로맨틱한 이유로 결혼이라는 과업에 뛰어들어가 보겠다는 것은 이성애자들에게도 판타지일까요? 저로서는 이성애자가 처한 상황을 완전히 겪을 수 없으니 그저 이해를 해 보고자 끊임없이 유추만 할 수 있을 뿐이네요. '연애랑 결혼은 달라, 결혼은 현실이야.'라는 말을 어디에서 들었는지는 잊었지만, 그 말이 꽤 오래 맴도는 것은, 저에게 연애가 현실이고 결혼이 판타지기 때문이겠죠.

또 슬펐던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든' 하는 것에 비해 현실적이고, 가능해 보였던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려고 들면, 제 머릿속의 시뮬레이션조차 끊임없이 벽 벽 벽 벽을 만나게 되더군요. 9월, 문화제 준비 기간 중에 김조광수 감독의 결혼식 기획단에 변날이 참여하고, 결혼식에도 참여하면서 제 기분은 그야말로 미묘했습니다. 어떤 용기와 마음이면 그 벽을 향해 달려갈 힘이 날까요. 묘한 비장함과 숭고함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억합니다. 세상의 결혼식들은 각각의 비장하고도 숭고한 의미를 갖겠죠. 퀴어의 결혼식도 역시.

한편으로는 김조광수 감독의 결혼에 대하여 '전통적인' 가족상에 부부만이 동성으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퀴어'가 편입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어요. 그리고 모든 퀴어들이 누군가로부터 오롯이 사랑받길 원하고, 그 또는 그녀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오래토록 유지하고 싶어 하고, 가능하다면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전통적인' 가족상만을 꿈꾸지는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 우려를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결혼을 원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또한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유난히도 올해는 여러 나라들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는 각자의 꿈을 꾸었죠. 그 꿈들을 이 앞의 자료집 전체에서 실컷 말하고도 남아, 이렇게 마지막에 또 붙이는 글을 쓴 것은, 동성 결혼 합법화가 끝일 순 없다는 것을 굳이 이야기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동성 결혼 합법화가 하나의 가족 틀을 더 생산하는 식이라면,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이만큼이나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인정받는 것 정도가 끝일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의 키워드로 딱! 정리하면 '다양성'이 될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성적 지향, 꿈, 가족에 하나의 추구해야 할 표준이나 틀이란 것은 없습니다. 변날이라는 단어, 변날방이라는 공간에 함께 있는 우리들도 이만큼이나 놀랍도록 다양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다면 그것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스처가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갈 방향을 잊지 않으면서, 더 걸어 나가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길이 이어져 나갈 때에 정말이지 기쁠 것 같습니다.

관련단체 소개

무지개행동 LGBT ACT

<http://lgbtact.org>

무지개행동은 2007년 말에 있었던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내 성적 지향 및 11가지 차별금지 사유 삭제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2008년에 결성된 성소수자 단체 및 활동가 개인들이 모인, 성소수자 차별 반대를 위한 일상 연대체입니다. 함께 하는 단체는 무지개행동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http://www.kpil.org/>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국내 최초로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삼은 공익변호사단체입니다. 공감이 함께 걸은 인권의 길은 아직은 여전히 흔적(痕跡)에 불과합니다. 적지 않은 시간 활동을 해왔음에도 뚜렷한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감, 인권, 법'이라는 의미들을 다시 되새기다 보면 한 방의 변화를 쫓는 것은 조급함의 표현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길은 함께 걷는 실천"일 것입니다. 더 많은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하며 '공감'(共感, empathy)하는 마음의 길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격려와 질책을 기다립니다.

국제인권소식 '통'

<http://www.tongcenter.org/>

국제인권소식 '통'입니다. '통'에서는 국제인권관련 문서와 주요 동향을 번역하고 해설한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번역되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을 자료가 있으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또, 같이 활동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이메일 tong@tongcenter.org, 트위터 @tongcenter로 연락주세요.

동성애자인권연대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DongInRyun)

<http://www.lgbtpride.or.kr/>

'동인련'이라는 줄임말로 더욱 익숙한 이 단체는 대표적인 성소수자 인권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1997년 대학동성애자인권연합으로 출발하여 1998년 단체명을 변경한 이래로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인터섹슈얼 등 성적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성소수자 인권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이성애자들도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만큼 성 정체성, 성별, 나이, 학력, 질병유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 모두 서로에 대한 존중과 스스로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LGBTAIQ Crossing the damn world (It means Totally Queer)

<http://wanbyun.org/>

거주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다섯 번 명칭을 바꿨습니다. 성소수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읽고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모였습니다. LGBT가 성소수자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담아내지 못하지 않아? 라고 해서 LGBTAIQ로 바꾸고, 근데 LGBTAIQ면 되는 건가? 라는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대학모임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 만들었던 터라 명칭에 대학생들 붙였지만 굳이 대학생들만 함께 할 필요도 없고, 대학생이라는 특권적 위치에 대한 성찰도 더해 다시 했습니다. 언론 말고도 하고 싶은 일이 많고, 활동하다 보니 언론이 아닌 것도 같아서 언론도 했습니다. 이 과정은 원탁에 둘러 앉아 방치 탕탕 같은 형식이 없어 설렁설렁한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옆에서 보면 한량놀음 같아 보였을 테지만, 서로 뽕글거리면서 하는 이야기들만으로 명칭을 바꿀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서로서로 밀바탕에 깔고 있는 최소한의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Collective for Sexual Minority Cultures PINKS

연분홍치마는 대한민국의 여성주의 미디어공동체이며 성적 소수 문화 환경을 위한 모임입니다. 첫 작품 <마마상>(2005년)에서 기지촌 성매매 여성이면서 포주가 된 사람들 이야기를 다루었고 이후 '키밍아웃 3부작'으로 불리는 <3 X FTM>(2008년), <레즈비언 정치도전기>(2009년), <종로의 기적>(2010년) 등을 통해 남/녀 이분법에 기반을 둔 이성애 중심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2012년에는 용산4구역 남일당 화재 사건을 다룬 <두 개의 문>을 제작하였습니다.

언니네트워크 Unninetwork

<http://www.unninetwork.net>

언니네트워크는 여성주의 사이트 언니네를 기반으로 하여 2004년 11월 27일에 그 첫 불을 지핀 여성단체입니다. 여성친화적 환경 형성과 여성주의 네트워크의 확장을 통해 모든 종류의 성적 차별 및 억압이 종식된 새로운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Justice Party, Sexual Minority Committee

<http://www.justice21.org/go/rainbowrights>

우리 사회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여러 시급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6년째 차별금지법은 제자리걸음이며 여전히 성소수자를 처벌하는 군형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난무하고 그들을 대변하는 세력의 힘은 너무 미비합니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성소수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법 제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정의당과 대한민국 사회에 선명하게 걸쳐서 무지개가 뜰 수 있는 날을 꿈꿉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Chingusai -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http://chingusai.net/>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1993년 창립된 '초동회'를 모태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없는 세상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1994년 2월에 결성된, 한국 최초의 성소수자 인권 운동 단체입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고정 관념, 국가의 불합리한 제도들은 여전히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소수자들은 행복하게 살 권리를 제약받고 억압당하며,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사이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 성소수자라면 누구나 안전하고 환영받는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사무실을 모든 성소수자에게 개방과 더불어 새롭게 가치와 비전을 정비하였습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 Lesbian Counseling Center in South Korea

<http://lsangdam.org/>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레즈비언들의 다채로운 삶과 고민으로부터 구체적인 실천들을 만들어 나가는 여성 이반 권리 운동 단체입니다. 1994년 <한국여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라는 이름으로 한국 사회 첫 레즈비언 독자 조직으로서의 문을 연 뒤, <한국여성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라는 이름을 거쳐, 2005년 봄, 현재의 명칭과 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상담 비용은 전액 무료로 상담소는 지지자들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며 상담업무 또한 모두 자원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상담소 내외에서의 면접상담도 가능합니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and Riughts Center(KSCRC)

<http://www.kscrc.kr/>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KSCRC)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HIV 감염인을 비롯하여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스스로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 권리보호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Solidarity for HIV/AIDS Human Rights Nanuri+

<http://www.aidsmove.net/>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는 에이즈라는 질병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하고 차별받는 감염인과 환자들의 인권과 치료권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연대기구입니다. 나누리+는 국내적 문제 뿐 아니라 감염인과 환자들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활동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누리+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공공의약센터, 한국남성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등의 5개 단체와 관심 있는 개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성주의 행동 집단 결

cafe.daum.net/ad-act-univ

결은 2011년 3월에 발족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학모임을 조직개편하여, 2012년 3월에 새롭게 설립된 대학생 단체입니다. 여성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소수자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학 내 반인권적, 차별적 상황에 맞서 대응하기 위해, 대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라는 세 가지 강령을 바탕으로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Labor Party, Sexual Politics Committee

<http://cafe.daum.net/sexpolitics>

대구퀴어문화축제

레주파 the Korean lesbian community radio group, Lezpa

<http://www.lezpa.net/>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사람을 생각하는 인권, 법률 공동체 두런두런

<http://cafe.naver.com/dolearndorun>

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http://cafe.daum.net/sg.queers>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Network for Glocal Activism

<http://www.glocalactivism.org/>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Christian Solidarity for a World without Discrimination(Chasegiyeon)

<http://cafe.naver.com/equalchrist>

퀴어문화축제 Korea Queer Culture Festival

<http://kqcf.org/>

한양대 LGBT 인권위원회(준)

LGBT Human Rights Committee in HanYang University

보너스! 관련 단체들의 트위터 계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withGongGam

국제인권소식 '퐁' @tongcenter

동성애자인권연대 @lgbtaction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wanbyun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ypinks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justice_queer_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chingusai

한국레즈비언상담소 @lsangdam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scc

여성주의 행동 집단 결 @ad_act_univ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sexualpolitics

대구퀴어문화축제 @queerfes

레주파 @lezpa_twt

사람을 생각하는 인권, 법률 공동체 두런두런 @dolearndorun

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SG_Queers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NGASF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GmtQ

퀴어문화축제 @kqcf

한양대 LGBT 인권위원회 @HYLGBT

홍연) 같이 일 한 변날, 투정 들어주는 친구들, 자료집 읽고 계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다음 문화제 때 다시 뵙게요.



보리) 작년 문화제가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저는 또 변날에 있네요. 마성의 변날. 이제는 설부른 소리 하지 않으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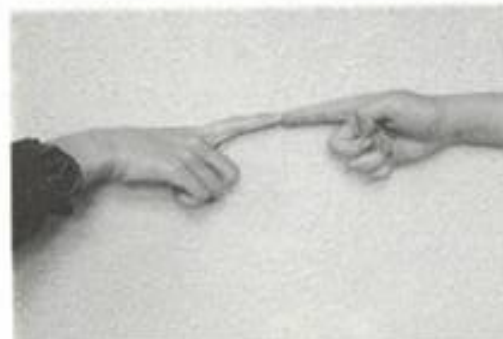
글을 쓰려 하면 막상 하고 싶었던 말들은 생각나지 않고, 결국은 더듬더듬 모자란 글을 이어왔습니다. 문화제 준비에서 글 내라는 갈굼(?)을 담당했던 저지만, 저도 참 수줍었습니다. 모자란 만큼, 수줍네요.

제 급함을 비뚤게 봐주지 않고 웃어주신 변날러들 고마워요. 자료집 페이지수를 체크하며 정말 뿌듯했어요. 여름부터 뜨겁게 달려온 우리, 다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케이) 학기 중에 과제하랴 문화제 준비하랴 바빴는데, 문화제 포스터가 여기저기 걸려 있는 걸 보면 뿌듯하네요. 디자인 하면서도 즐거웠고요. 작년 문화제는 그냥 손님으로 있었는데 정말 즐거웠거든요. 올해 문화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 반 걱정 반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이린)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방대한 분량에 비해 한 일은 미미하지만 문화제 자료집 만드는 일조차 즐거웠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했기에) 내년에도 변날이란 곳에 제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도 자리를 내줄 수 있는 변날이 될 수 있으면, 많은 이들이 변날이란 그늘 아래서 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 난 솔직히 글 쓰는 것도 자신 없고, 내가 능력 없는 것 같고, 정신 없고 그랬는데, 그래도 즐겁고 재미 있었어요. 놀고, 먹고, 자는 거 아닌데 즐겁고 재미있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걸 해라.'는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꼈어요. 뿌듯해요.

마루) 작년 문화제를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즐거운 마음뿐이었는데 지금은 변날에 와서 겪은 힘든 일, 받은 상처들도 함께 떠올라요.

변날이 사람이라면 저와 변날은 지금 딱 알맞게 무르익은 사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변날에 어떤 걸 얼마나 헌신했고, 상처받았는지 셈할 필요가 없어지네요. 게으른 저 때문에 고생한 다른 친구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이제 변날에서 고마움만 안고 갈게요. 늘 응원합니다.

모카) ♥좋아하는 변날에게♥

오래 망설였지만 드디어 널 만났어. 좀 더 일찍 용기내지 못해 미안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 꿈에 내 이야기도 써넣을 수 있다는 것에 무지 행복했어. 다음 꿈에도 초대해줄래? 내 일도 함께 소중한 것들을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안녕!

-변날에게 모카가♥



유니) Wow-!!! I was able to feel comfort through writing articles about my future, my family, and my sexuality. This group is a team. I felt impressed by the amount of hard work that the members of this group put into making this year cultural festival happen. The energy and the acceptance of the group make me feel like I am part of a family even though I am a newcomer. I know I am going to miss ever doing this again with 변날. 변날 forever!!!



케일) 말로만 들어왔던 문화제를 드디어 겪어봤네요.
뭔가 진정한 변날러가 된 기분..! 제가 아주 많은 일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뿌듯하네요. 모쪼록 남은 일정
도 큰 탈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기다립니다....

성정체성/ 학번/ 전공 무관하게, 두 학기 이상 활동할 수 있는
변날인을 모집해요.

ewhabyunnal@naver.com으로 간단한 지원동기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을 위한 자세한 설명은
<http://blog.naver.com/ewhabyunnal>에 있어요.



이화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의 후원회

이화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의 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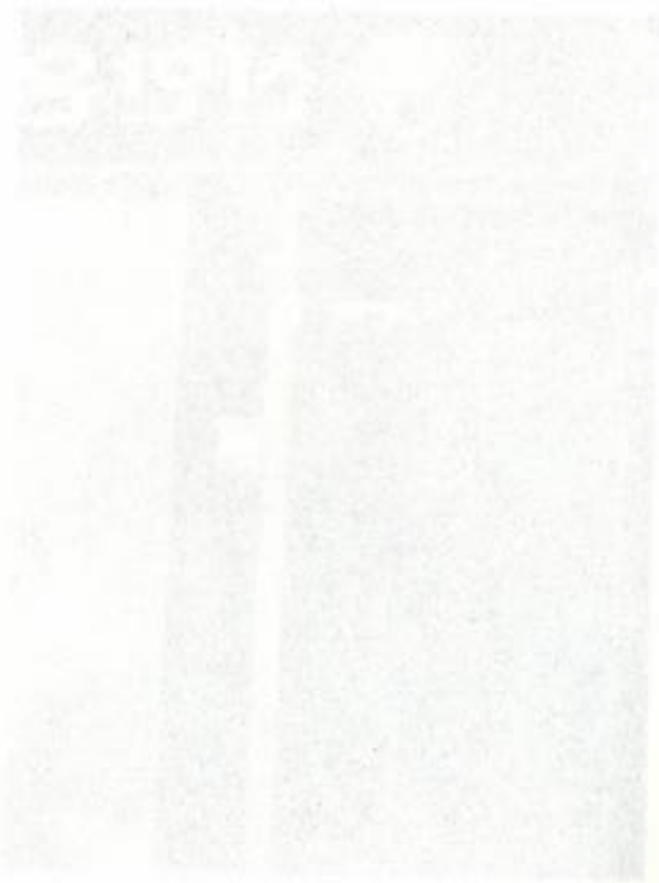
이화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의 후원회



이화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는
신한 110-342-103125 노정은입니다.
항상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레이린 마루 모카 보리 유니 지구 케이 케일 홍연
편집 마루 보리 지구 홍연
디자인 케이